

## 역사속의 율곡학 스토리텔링1

# 역사기록보다 『논어』를 중시한 이언적

임태홍

율곡(1536-1584)이 외가인 오죽헌에서 태어나 아직 어머니 신사임당 품 속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다. 중종 33년 (1538)년 1월 21일, 율곡이 세 살되던 때인 당시 임금인 조선 제11대 국왕 중종이었는데, 조정에서 임금이 신하들과 유교 경전을 읽고 있었다. 이 때 임금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이언적(李彦迪)이 왕세자의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끄집어냈다.

“조정의 잘잘못을 아뢰려고 하지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급선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세자를 잘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자는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예민(銳敏)하여 학문이 통달(通達)하였으니, 종묘·사직과 백성들의 복(福)입니다.”

당시 세자는 중종의 장남으로 나중에 12대 국왕이 되는 인종이다. 인종은 1544년에 중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병으로 8개월 만에 승하한 불운의 왕이었다. 이언적이 세자의 자질이 총명하고 학문이 훌륭하여 종묘·사직의 복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종묘·사직이란 국가라는 뜻이다. 종묘란 역대 왕과 왕비를 모신 사당이며,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말하는데, 둘을 합쳐서 ‘국가’, 즉 조선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다.

이언적은 이날 임금의 교육을 맡은 ‘시강관(侍講官)’으로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강독(講讀)하고 있었다. 시강관이란 임금에게 유교 경전을 강의하는 문관을 말한다.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란 중국 명나라의 학자 구준(邱濬)이 1487년에 『대학연의(大學衍義)』라는 책을 보충하여 지은 서적으로, 유교의 사서(四書) 중 하나인 『대학』의 여덟 조목 가운데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논한 책이다.

이언적(1491년-1553년)은 경북 경주에서 출생하였는데, 151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1539년에는 전주부윤을 역임한 적도 있는 유학자였다. 그는 특히 주자가례에 정통하였으며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퇴계 이황의 학문에 큰 영향을 준 학자로 유명하다. 이날 임금을 가르치는 경연(經筵)은 그가 전주부윤에 나가기 1년 전의 일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임금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세자를 보호하고 기르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배움에는 근간이 되는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 즉 아주 중요한 것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앞선 성현(성인과 현자, 즉 지혜로운 자)들이 남긴 경전(經傳)을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리(性理)를 연구하는 것이 근본적이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 기록을 훑어보면서 앞선 시대의 정치를 고찰하여 오늘날의 귀감과 경계로 삼는 것은, 비록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엽적이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앞선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것 보다는 유교 경전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성현들의 경전인 유교 경전에 나오는 성리(性理), 즉 인간의 본성과 그 이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결국 송나라 주자가 집대성한 주자학, 즉 성리학을 철저히 배우는 것이 몹시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인직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가 들으니, 요즘 왕세자를 가르치는데, 아침에는 『자치통감강목』을 가르치고, 낮에는 『논어』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서적을 우선으로 삼고 경전(經傳)을 나중에 삼는 것입니다. 대체로 해가 뜨는 아침에는 사람의 마음과 기운이 맑고 깨끗하여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환하게 드러나므로 마땅히 『논어』를 아침에 진강하고 역사서적인 『자치통감강목』은 낮에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세자는 당시 23살이었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도 같은 나이이다. 그런 세자에게 역사과목을 아침에 먼저 가르치고, 낮에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마땅히 도덕을 가르치는 『논어』를 먼저 듣게 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자치통감강목』은 나중에, 즉 낮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과목을 먼저 듣고 나중에 듣고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이언적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자치통감강목』은 송나라 주희, 즉 주자가 집필한 중국의 역사서로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에 대해서 큰 제목은 강(綱)으로 세우고, 역사적 사실은 목(目)으로 구별하여, 즉 ‘강목’의 형식으로 편찬한 서적이다. 중국의 전국시대 이후 오대 십국 시대까지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이언적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임금이 통치하던 당(唐)나라와 순임금이 통치하였던 우(虞)나라 그리고 삼대인 하상주(夏商周)의 삼대(三代) 이전에 어찌 역사 기록이 있었겠습니까? 심학(心學)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우와 하상주, 즉 하은주(夏殷周) 삼대는 중국에서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태평성대의 시기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평화의 시기 이전에 역사 기록은 없었으며 오직 심학(心學)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심학이란 마음의 학문, 즉 도덕 수양의 학문인 『논어』 등 경학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이언적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사회가 태평성대의 시대였고 임금들이 모두 성인이며 성군들이었기 때문에 혼란한 사회와 정치를 기록한 역사 서적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보는 역사서적은 그 뒤에 어지러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이언적은 “하상주 삼대 이후에는 본받을 만한 것은 적고 어지러운 것이 많습니다. 『자치통감강목』을 진강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비록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겠으나, 왕을 가르치는 제왕(帝王)의 학문에서 너무나 그 차례를 잃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중종은 시강관인 이언적의 가르침을 듣고 “이러한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언적의 의견은 유학자로서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에서 우리는 적어도 중종 시대까지는 왕세자의 교육에 역사 서적이 전하는 흥망성쇠의 가르침을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개국한지 150여년이 지나면서 역사적인 가르침 보다는 유교 경전의 도덕적 가르침을 점점 더 중시하게 되었다. 율곡 이이는 성리학의 주리(主理)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유교를 배웠으며 과거시험을 준비하여 나중에는 장원 급제를 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율곡의 사상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역사속의 율곡학 스토리텔링2

### 명나라 사신과 『시경』

임태홍

유교 경전 중에 『시경』이 있다. ‘시(詩)의 경전’이라는 뜻의 『시경』은 『예기』, 『춘추』, 『역경』, 『서경』과 함께 오경(五經) 중 하나로 꼽는다. 이는 중국 최초의 시가집 혹은 민요집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제자 교육용으로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당나라 때 ‘오경’에 포함되어 『시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시경』은 원래 『제시(齊詩)』, 『노시(魯詩)』, 『한시(韓詩)』, 『모시(毛詩)』의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지만 『모시』만 남고 모두 멸실되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경』은 모시로 불리기도 한다. 주나라의 시(詩)라는 뜻에서 『주시(周詩)』라고 불리기도 한다.

『시경』에 실려 있는 시는 모두 311편인데 이중 6편은 제목만 있고 가사가 없다. 전체는 풍(風), 아(雅), 송(頌)의 노래로 분류되어 있는데 ‘풍’은 각지에서 수집된 민요로 사랑의 노래나 일을 하면서 하는 노래가 많다. ‘아’는 연회 때 사용된 노래 가사이며, ‘송’은 제사 지낼 때 사용된 노래 가사다. ‘아’와 ‘송’은 주 왕조를 찬양하는 노래가 많다. 이러한 『시경』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나라의 사회와 풍속, 나아가 그 시대의 정치와 사상,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노래가 이른 것으로는 서주시대, 즉 주나라 초기의 것도 있다고 전해진다.

공자는 “『시경』에 보이는 시 삼백 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는 것이다”(『논어』「위정」)라고 하였는데, 시를 쓰고 읽는 마음에는 사악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고대 때부터 외교 현장에서는 적절한 『시경』의 글귀를 사용한 외교적 교류가 적지 않았다. 율곡의 생존 시대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현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1537년 중종 32년, 율곡이 태어난 다음 해의 이야기다. 중종(中宗, 1488-1544)은 연산군의 뒤를 이어 반정으로 임금이 된 왕이다.

그해 3월,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파견되어 궁중에 들어왔다. 3월 10일(음력)에 왕이 경복궁의 태평관에서 하마연을 베풀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하였다. 이 때 중종은 명나라 사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경(詩經)』에 ‘즐겁구나, 우리 님은. 나라의 빛이로다[樂只君子, 邦家之

光]’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대인 같은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 만일 어질고 지혜로우신 명나라 황제의 고마우신 분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뵙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명나라 황상의 은덕이 망극합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환영 만찬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의 토속악이 배경 음악으로 흐르고 있었다. 원래 종종이 인용한 『시경』의 「남산유대(南山有臺)」는 중국 고대에 손님을 접대하는 연회에서 자주 사용되던 노래였다. 그 시경의 구절을 이용하여 중국측 사신들에게 조선의 문화적 수준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명나라 사신들을 이미 조선의 예법이 섬세하고 수준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선의 국왕에게 이미 다음과 같이 감탄의 인사를 한차례 전한 차였다.

“저희들이 처음 명나라 조정을 떠나올 적에 어찌 귀국의 예의가 이와 같이 아름다울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보니 온 각지의 고을 관원들은 일마다 예를 다하여 온갖 법도가 참신하였으니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하였다. 또 사신의 한사람인 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국왕께서 신민들을 잘 가르쳐 하는 일이 모두 법도에 들어맞으니 대단히 감탄스럽습니다.”

외국 사신에 대하여 ‘예의가 아름답다’거나 ‘예를 다한다’는 개념은, 국가 간에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현대적인 외교 관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당시의 국제질서 아래에서는 격식을 잘 갖춘 외교적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국왕의 『시경』 글귀를 전해들은 명나라 사신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하께서 대국을 섬기는 정성이 이러하시니 이는 반드시 황천(皇天)이 도와 주어 우리 대명(大明)과 기쁘고 슬픈 일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만세토록 무한한 복입니다.”

이어서 명나라 부사(副使) 역시 시경의 문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경』에 ‘울타리가 되시고 담 기둥이 되시니, 모든 제후들이 본받으시네.[立屏之翰, 百辟爲憲]’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전하의 위엄과 권위를 직접 뵙고 보니 참으로 훌륭한 임금입니다.”

중국의 천자를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는 조선의 국왕의 모습이 다른 모든 제후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말은 요즘의 국가 관념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천하주의적이며 중화주의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살았던 전통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외교적 수사로 이해할 수 있다.

명나라 사신이 인용한 『시경』의 문구 바로 뒤에는 ‘굽은 쇠 뿔잔에 맛있는

술을 부어 올린다.’라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 당시 술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한층 더 띄워주는 의미도 있었다. 연회가 끝나는 순간에는 또 『시경』의 문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임금: “흐뭇한 술자리가 밤에 벌어진으니 취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못하리라.”

명나라 사신 : “군자를 만났으니 어찌 즐겁지 않으리.”

임금: “내게 맛있는 술 있어 좋은 손님 잔치하며 즐기시네…마음으로 사랑하거늘 어찌 말하지 않으리. 마음속에 품고 있거늘 어찌 하루라도 그대를 잊으리.”

외교적인 수사가 가득 담긴 『시경』의 문구를 적절히 사용하여 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즐겁게 만드는 광경이다. 당시는 『시경』 속에 들어있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한자도 틀림없이 외우고 있어야 국제적인 교류가 가능했던 시대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유교 경전의 위상이 어찌하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율곡과 과거시험

임태홍

율곡은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 즉 ‘아홉 차례나 과거에 장원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한차례 과거에 합격하기도 어려운 데 아홉 번이나 과거에 합격했다는 것은 율곡이 그만큼 열심히 유교 공부를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16세 때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시자 파주 자운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 옆에서 3년간 시묘(侍墓)살이를 하였다. 율곡에게는 이 시기가 조용히 학문에 침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묘살이를 끝내고 그는 갑자기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되기도 하였다. 그는 불교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였지만 환속하여 과거시험에 도전하여 잇달아 장원 급제를 하였다.

율곡은 이미 1548년, 13세 때 진사 초시에서 장원 급제를 한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1556년 21세 때, 한성시에 수석 합격하였다. 1558년 23세 때 행해진 별시(別試)에서는 「천도책(天道策)」이라는 문장으로 장원하고, 그 뒤에 있었던 생원진사시(1564년)에 합격하고, 다시 한달 뒤에 시행된 명경시(明經試)에 급제하였다.

이러한 장원 급제를 발판으로 그는 곧 호조좌랑, 예조좌랑, 이조좌랑 등을 거쳐서 홍문관 부교리, 춘추관 기사관, 홍문관 교리, 청주 목사,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아홉 차례나 과거에 급제하였던 성과가 그의 화려한 관직생활의 배경이 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공무원 시험이었던 과거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과거시험은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는데 문과는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와 비정기적으로 치르는 별시, 알성시 등 시험이 있었다. 시험 단계별로는 먼저 초시를 보고, 거기에 합격하면 복시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전에 들어가 왕 앞에서 보는 전시가 있었다. 복시에서는 33명을 뽑았는데 전시에서 그 순위를 결정하였다.

중종 32년, 즉 율곡이 탄생한 다음해인 1537년에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의 관리들이 문장을 중시하고 궁궐이나 관청에서 문헌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감탄하면서 조선의 관리들은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 선발되는지 몹시 궁금해 하였다. 마침 경복궁을 방문하여 연회에 참석하였을 때 종종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명나라 사신 : 저희들이 외람하게 천은을 입어 조서를 받들고 문헌(文獻)의 나라에 와서, 예의와 제도가 모두 갖추어져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보고 매우 탄복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묻겠습니다. 귀국에서는 관리를 뽑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선의 임금 : 향시(鄉試)는 인·신·사·해(寅申巳亥)의 해에 시행하고 회시(會試)는 자·오·묘·유(子午卯酉)의 해에 시행합니다.

명나라 사신 :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조선의 임금 : 회시에서는 33명을 뽑습니다.

명나라 사신 : 과거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조선의 임금 :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 : 그렇다면 그 기록을 한 번 보았으면 합니다.

조선의 임금 : 그렇게 하시지요.

울곡이 과거시험에 여러 차례 장원을 한 성과를 보면 그런 일이 너무도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이었다. 조선시대에 보통 양반집 자제들은 5살 정도가 되는 때부터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선 서당이나 자기 집에서 『천자문』 공부를 하고, 『동몽선습』과 같은 초급용 학습교재를 사용하여 한문 읽기와 쓰기 기초를 세웠다. 울곡이 지은 『격몽요결』도 나중에는 중요한 초급 학습교재로 활용되었다.

기초과정을 마치면 아이들은 그 뒤에 유교경전인 사서(四書, 논어·맹자·중용·대학) 삼경(三經, 시경·서경·역경)을 교과서로 삼아 철저한 경학 공부에 매진하였다. 과거 시험의 기본텍스트가 바로 사서삼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뒤 보통은 20년에서 30여년 간을 그러한 공부에 매진한 뒤에 비로소 과거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합격자들은 유학의 경학공부와 함께 한문으로 시문과 문장을 짓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 국가가 현재 처해 있는 중요한 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잘 정리하여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책문(策文) 시험이 있었다. 울곡이 별시에서 장원할 때 지었던 「천도책」은 바로 그러한 시험의 답안이었다.

결국 과거에 합격한 조선의 관리들은 사서삼경의 문장을 거의 완벽하게 외우



고, 한문 고전의 멋진 글귀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문장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았으며, 국가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식견을 갖춘 인재였다. 사서 삼경은 특히 주자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읽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성리학(性理學)’이라고 하는 인문학적 철학사상을 기본 소양으로 갖춘 철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왜 이러한 지식인들을 관리로 채용하였을까? 우선은 당시 외교나 국방과 같이 국가적인 대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문과 한자에 대한 소양이 필요했다. 국가의 중요한 기록이나 문헌이 모두 한자와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했던 중국이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성리학적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성품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공평무사하여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성리학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한 지식인은 그러한 품성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불교나 도교를 공부한 사람들 보다는 주자학에 기초한 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더 적합할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 경전을 중요 교과서로 삼고 그것을 과거시험으로 테스트한 것이다.

## 정치가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임태홍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대개 ‘학력’ 관리에 힘쓴다. 엄밀히 말하자면, 학력 관리가 아니라 ‘학교 간판’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좋은 학연을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동문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또 투표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과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569년 선조 2년 때의 이야기다.

율곡은 당시 34세로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였다. 홍문관은 성종 때(1470년) 설치된 기관으로 집현전의 성격을 계승한 것이다. 업무는 주로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간언(諫言)의 임무도 있었다. 간언이란 임금이 국정을 행할 때 잘못 판단을 하거나 국가대사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잘못을 지적하고, 직언을 하는 것이다.

8월 16일(음력), 율곡은 왕에게 『맹자』를 강의하였다. 왕조실록 기사 「홍문관 교리 이이(李珥, 율곡)가 『맹자』를 강의하고 인심(人心)의 진작과 성학(聖學)의 정진을 말하다」라는 기록의 이야기다. 인심이란 요즘으로 말하자면 ‘민심’이며, ‘성학’이란 대통령의 수양 공부다. 율곡은 맹자 문장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각 시대마다 각기 숭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숭상한 것은 부국강병(富國強兵)에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공략하여 탈취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한(西漢) 때는 순박함을 중시하고, 동한(東漢) 때는 절의(節義)를, 서진(西晉) 즉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청담(淸談)을 중시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는 주나라 때로 동주(東周)의 후반에 속한 시기다. 전반기는 춘추(春秋)시대라고 불린다. 공자가 살았던 때는 춘추시대 말엽이며, 맹자가 살았던 때는 전국시대 초기다. 전국시대는 특히 약육강식의 시대로 상하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시기였다. 율곡은 ‘부국강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력하게 만들어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율곡의 설명에 따르면, ‘부국강병’의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단지 전쟁에 이기고 남을 공격하고 탈취하는 일을 중시할 뿐이다. 그는 한나라 때는 순박함이나 절의를 중시하였다고 하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청담사상을 중시하였음을 지적한 뒤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임금이 된 사람은 백성들이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것이 잘못 되었으면 마땅히 그 폐단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권력과 세력을 가진 간사한 신하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 뒤를 이어서 관리들의 기상이 쇠약해지고 나태해져 한갓 녹(祿)을 받아먹고 자기 한 몸 살찌울 줄만 알지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의 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설령 한두 사람 뜻을 가진 이가 있어도 모두 속된 시류에 휩쓸려 감히 기력을 발휘하여 국세를 진작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이러하니 임금께서는 마땅히 크게 일을 성취시키겠다는 뜻을 가지시고 관리들의 기풍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잘못된 시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율곡이 중국 고대의 역사, 엄밀히 말하면 문화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은 한 것은 정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시류를 파악하고, 백성들과 관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서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율곡은 “국세를 진작시키라”, “임금이 마땅히 일을 크게 성취시키겠다는 뜻을 가져라”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의 제시다.

젊은 나이의 율곡은 당시 선조 2년의 시류와 세태에 대해서 몹시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권세를 가진 관료들이 나태하고 대의를 보지 못하며 사적인 이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문에서 ‘사기(士氣)’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선비의 기풍’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관리들의 기풍’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 당시 율곡이 비판하고 있는 점은 국정과 관련된 잘못이지, 초야에서 글을 읽는 선비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어서 율곡은 맹자의 공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임금의 책임을 언급하였다.

“옛날에 맹자는 필부의 힘으로 단지 언어(言語)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도 사악한 논의를 종식시키고 바른 도(道)를 넓히어 우(禹)임금과 같은 공을 이루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백성을 다스릴 책임을 맡고 있으니 이 도로써 제대로 백성

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후세에 교화를 드리울 뿐만 아니라 당대에 교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그 공이 어찌 맹자에 그치고 말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된 일에 빠져들어 홍수의 재해와 양묵(楊墨)의 피해보다 심하니, 임금께서는 다만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터득하여 교화를 세상에 널리 펴시어, 군주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율곡이 맹자를 예로 든 것은 당시 강연에 사용한 책자가 『맹자』였기 때문이다. 맹자는 권력도 없었고, 임금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나 글을 쓰고 가르침을 통하여 큰 공을 이룩하였다고 보고 임금이 된 지 2년차인 선조에게 맹자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르면 어찌 그보다 못하겠는가하고 분발을 촉구하였다.

맹자에도 언급되어 있는 ‘양묵’의 피해란 양주(楊朱)와 묵가의 피해를 말한다. 『맹자』 (「진심장구」)에 이런 말이 있다. “양주는 ‘나를 위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나의 한 오라기 털을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더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묵자는 겸애(兼愛)를 주장하여 머리에서 발꿈치까지 모든 털이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천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고 한다.” 어느 주장이나 그것은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 출발은 임금이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터득하여 교화를 세상에 널리 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교화’란 어떤 의미일까? 당시 율곡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공자가 설파한 인의(仁義)의 가르침만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의미한 ‘교화’는 공맹의 사상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말로 이러한 ‘교화’의 뜻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비전을 정치 지도자가 제시하고, 그것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해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임금이 해야 할 공부

임태홍

‘대통령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대통령학회도 있고, 한국대통령학연구소도 있다. ‘대통령학’이라면 사실 유교의 가르침만큼 체계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 유교, 특히 성리학은 그러한 학문이 집대성된 철학이다.

율곡은 선조에게 수시로 대통령학 강의를 하였다. 선조 2년의 기록이다.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생각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다스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학문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른바 학문이라는 것은 단지 부지런히 경연(經筵)에 나아와 고서(古書)를 많이 읽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하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지로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야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연이란 궁중에서 학자들이 임금과 함께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 등을 읽는 것이다. 말하자면 임금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다. 율곡은 임금이 잡다한 서적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격물(格物)이란 사물을 잘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치지(致知)란 지식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통하여 뜻을 정성스럽게 가지며[誠意],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正心]. 『대학』에 나오는 이러한 개념은 바로 마음 공부, 수양 공부를 의미한다. 마음을 바로 하는 공부를 한 뒤에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고 비로소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율곡이 선조 2년, 즉 1569년에 임금을 앞에 두고 이렇게 대통령학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던 것은 어떤 배경 때문이었을까?

율곡은 당시 34세였다. 그는 1564년(명종 19)에 문과에 급제한 뒤, 호조좌랑으로 임명되고, 곧이어 예조좌랑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 때 그는 왕실의 외척 윤원형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비행을 일삼던 승려 보우를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한 해에는 횡포를 일삼던 재상 심통원을 탄핵하여 관직에서 쫓아냈다. 1568년에는 명나라 사신을 따라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에 동행하였으며, 그 다음해 1569년에 귀국한 뒤에는 홍문관의 부교리, 교리로 승

진되었다. 그와 동시에 춘추관기사관을 겸임하였으며, 『명종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율곡은 당시 임금의 경연에 참석하고 임금을 가르치며, 임금과 관료들의 잘못을 살펴서 바로잡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에게 거침없는 충고와 가르침을 펼 수 있었던 것이다.

임금은 왜 수양 공부를 해야 하는가? 율곡은 임금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

“필부는 집에 있으므로 아무리 학문의 공이 있다 해도 그 효과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임금은 그렇지 않아 마음과 뜻에 축적된 것이 정사(政事)에 발휘되는 까닭에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민생은 궁핍하고 풍속은 경박하며 기강은 무너지고 관리들의 기풍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몇 해가 되는데도 다스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전하의 격물·치지·성의·정심하는 공부가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풍조가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날로 더욱 퇴패(頹敗)해진다면 나라 모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 없는 필부, 즉 일반 시민은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그가 결정한 일들이 한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지만 임금의 결정은 그렇지 않다. 임금의 마음 씀에 따라서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피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임금의 한마디 말에 따라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잡다한 지식을 쌓기 전에 먼저 마음의 수양공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 밑의 신하들이 그것을 따라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백성들은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율곡은 당시 풍조가 경박하고 기강이 무너진 것은 결국 임금인 선조의 수양공부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보았다. 지극히 유학자다운 판단이었다. 율곡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엎드려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크게 성취시키겠다는 뜻을 분발하시어 도학(道學)에 마음을 두시고 선정(善政)을 강구하시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임금이 장차 삼대(三代)의 도를 흥기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하십시오. 그런 뒤에 모든 신하들의 선악을 자세히 살피시어 충군 애국하는 자들을 가려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고, 아무 뜻도 없이 평범하게 국록만 탐하는 자들은 큰 직책에 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인사의 타당함을 얻고 인물과 자리가 서로 걸맞게 된다면, 경세제민(經世濟民)하는 선비들 중 세상에 소용이 되는 자가 반드시 나와 나라의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도학’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

며, ‘삼대’의 도(道)를 흥기시키자는 것은 중국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좋은 정치와 제도를 조선에서 다시 부흥시키자는 것이다. 요즘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다소 편협한 제안일 수 있으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전인 전통사회에서는 유교를 중시하는 지식인으로서 당연한 제안이었다.

이날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율곡은 다음과 같이 임금에게 제안하였다.

“이제 전하께서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시어 일상의 언행을 순수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올바르게 하여 신하와 백성들의 모범이 되신다면, 군자(君子)들은 믿는 바가 있게 되어 충성을 다해 보좌할 것이며, 소인들 역시 임금의 마음을 사사로이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반드시 허물을 고치고 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임금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 나라가 안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이루상편」)에 “군주가 어질면 모든 일처리가 어질지 않음이 없고, 군주가 의로우면 모든 일이 의롭지 않음이 없고, 군주가 바르면 모든 일이 바르지 않음이 없다. 군주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 나라가 안정된다.”고 하였다. 율곡은 그 문구를 이용해 임금이 항상 몸가짐과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건의하였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가 행해지는 지금과 달리, 율곡이 살았던 전통시대에는 임금의 역할이 막중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정신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반드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의(誠意)·정심(正心)의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

임태홍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요즘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을 한자말로 바꿔보면 ‘치국(治國)’이다. ‘치국’이란 전통시대 지식인들에게는 흔히 쓰는 말이었다.

특히 중국의 고대 문헌에는 매우 빈번하게 이 ‘치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당시에는 ‘국가를 다스린다’는 치국의 개념이 매우 중요했다. ‘지식’이란 국가 통치를 위한 지식이었고, ‘지식인’이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글을 배운 사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유교사상에서 ‘치국’은 대개 ‘평천하(平天下)’와 함께 어울려 등장한다.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혹은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의 ‘평천하’는 사실상 ‘치국’과 같은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나라 ‘국(國)’자는 우리나라를 통째로 지칭할 수 있는 글자이지만 중국에서는 한 지방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다. ‘천하(天下)’라는 말이 비로소 중국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평천하’는 ‘중국 전체를 평화롭게 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바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와도 바꿔 쓸 수 있는 것이다.

유교에서 사서(四書)의 한 권인 『대학』에 ‘치국, 평천하(治國, 平天下)’라는 문장이 나온다. 두 단어를 나란히 이어서 쓰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정치가란 어떤 한 지방을 잘 다스려야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전통시대 유교 지식인은 유학 공부를 시작하면 우선 맨 처음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 평천하’라는 말부터 배운다. ‘치국 평천하’ 앞에 ‘수신제가’라는 말이 붙어 있다. ‘수신’이란 자기 몸을 닦는 것, 즉 도덕적인 수양을 하는 것이다. ‘제가’란 집을 가지런히 한다, 즉 집안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다. 요즘은 ‘집’이란 뜻이 한 가정의 의미가 강하지만, 고대에, 특히 중국에서 ‘가(家)’란 ‘국(國)’이나 마찬가지로 한 지방을 가리키는 의미가 강했다. 작은 지방은 ‘가’, 큰 지방은 ‘국’이었다. 고대의 농경시대에 가족은 보통 대가족을 이루어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며 살았다.

우리나라 시골에도 옛날에는 하나의 성씨를 가진 일가친족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그런 마을이 더 커서, 마치 하나의 정치 공동체처럼 집단을 이룬 경우가 많았다. 그런 집단을 ‘가(家)’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란 역시 ‘치국’이나 ‘평천하’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조그마한 집단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그러므로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수양을 하면, 작은 집단을 잘 다스리고, 나아가 더 큰 집단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몸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다.’

유교적 교양을 가진 전통시대 지식인은 어떤 집단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신’의 문제를 따진다. 자기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이나 어떤 지방이나 나아가 국가 전체를 잘 다스리겠냐는 것이다.

과거에 수차례나 합격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한 율곡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치 문제를 파악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유학자들과는 좀 더 다른 해안이 있었다.

선조 대왕 때(6년, 1573년, 10월 12일) 경연의 자리에서 임금이 율곡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물러가서는 오지 않았는가?”

율곡이 병을 핑계대고 관직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일을 생각하고 묻는 것이었다.

율곡이 말했다.

“신은 병이 깊고 재주가 없어 스스로 돌아봄에 큰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나라의 봉록만을 먹는 것은 참으로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물러가서 죄를 면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그대의 죄는 내가 아는 것이니 지나치게 겸양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시 물러가지 말도록 하라. 그대는 물러가 있어도 자주 소장(疏章)을 올렸으니 나랏일을 잊지 않는 것을 알 만하다.”

율곡은 초야에 있을 때도 국가의 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임금에게 올렸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을 확인하고 선조 대왕에게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냈다.

“신은 초야에 옆드려 있었으므로 임금님의 학문성과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임금이 깊은 궁궐에 깊이 있으면서도 참다운 덕이 있다면, 백성들이 보고 느껴서 사방이 감동하는 법입니다. 현대 오늘날 백성들이 초췌하고 풍속이 퇴패한 것이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율곡이 본 초야의 백성들은 태평성대의 시대에 볼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

다. 폭군이나 무능한 임금의 시대에나 볼 수 있는 백성들이었다.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었다[莫此爲甚]’고 하였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구절에 친숙한 보통의 유학자라면, 백성들의 고통은 임금의 수양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그친다. 율곡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진단을 내놓는다.

“신은 성학(聖學, 임금의 수양공부)이 날로 밝아지기를 기대했었으나 끝내 보람을 보지 못하니, 신은 참으로 괴상하게 여깁니다. 성질(聖質, 임금의 성품)이 영명(英明)하시어 참으로 큰일을 하실 수 있는 자질이신데, 즉위하신 처음에 높은 신하들이 잘못 보좌하여, 매번 비근한 사례를 끌어대어 선비들의 말을 물리치고 억눌렀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도록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수양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그 보람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 조정의 높은 대신들이 하급 공무원들, 혹은 재야의 선비들이나 지식인들의 좋은 의견을 무시하고 억눌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원문을 보면 율곡은 이들을 ‘유자(儒者)’, 즉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궁중에서 지식인들의 자유스러운 의견을 대신들이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꿔 말하자면 정부에서 언론 통제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선조 대왕 자신이 막은 것은 아니겠지만, 대신들이 막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결국은 백성들이 임금의 마음과는 달리 생활이 궁핍하고 행동이 퇴폐해지게 된 것이다.

아직 삼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나 ‘자유’, ‘인권’의 개념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정치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율곡은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시대이며 인권과 자유가 시민들이 향유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요즘 일부 정치인들은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표현 통제, 언론 통제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정치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정치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율곡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 나라를 다스리는 순서

임태홍

무슨 일이나 순서가 있는 법이다. 먼저 해야 할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에도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지엽적인 부분이 있다. 본질을 잘 꿰뚫어 추진하고 그것을 잘 완수하게 되면 지엽적인 것들은 자연히 잘 정리가 된다.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일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처리한다. 잘못하는 사람은 두서없이 일을 하다 지엽적인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미숙한 채로 일을 끝낸다.

조그마한 일도 이러한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어떻겠는가? 율곡이 선조 대왕에게 성학(聖學, 통치를 위한 임금의 학문)과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해서 강론할 때(1573년 10월 12일)의 이야기다.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

“내 성품이 어리석고 둔하여 감히 큰일을 할 수가 없다.”

율곡이 말했다.

“대왕의 성품이 원래부터 영리하고 총명하지 못하신다면 저도 절망하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영리하고 총명하시지만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큰 뜻을 분발(奮發)하지 못하시니, 이것이 신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필부(匹夫)가 글을 읽고 몸소 행하는 것도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 뜻이 있는데, 하물며 전하께서는 한 나라의 백성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할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나셨으니 어찌 스스로 분발할 뜻이 없겠습니까?”

율곡은 먼저 임금님을 추켜 세웠다. 임금님의 자질도 충분하고 정치를 잘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향약(鄉約)은 삼대(三代)의 법인데 전하께서 거행하라고 명하셨으니 참으로 근대에 없던 경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대의 법’이란 중국 ‘하은주’ 시대의 법이라는 뜻으로 이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에 실시하였던 법, 즉 훌륭한 제도라는 의미다.

향약이란 향촌 사회의 약속, 즉 자치 규약을 말한다. 율곡은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2년 전에 청주목사로 부임했었다. 그 때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鄉約)』을 토대로 『서원향약(西原鄉約)』을 제정하여 청주 지방 백성들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였다. 그 다음해 병으로 청주에 계속 있지 못하고 사직하고 파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뜻했던 향약의 실시는 중지되고 말았다. 그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율곡은 자신이 추진했던 향약을 이야기 하면서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다”고 하였다. 본질적이면서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엽적이며 나중에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임금이 마음을 바로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한 뒤에 만민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약은 만민을 바르게 하는 법입니다. 조정과 백관이 아직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먼저 만민을 바르게 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다스리는 것이어서 일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촌의 자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향약의 기본 정신은 유교 사상에 바탕을 깔고 있다. 서로 덕업을 권하고, 과실을 서로 경계하며, 예속으로 서로 사귀며, 환난을 당해서 서로 도와서 구하자는 내용이다. 율곡도 충주목사를 하면서 서원향약을 만들어 추진하였는데, 향약은 백성들을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도덕적으로 이끄는 방편이기도 하였다. 나쁜 의미로 말한다면 ‘자치’라기 보다는 관 주도형의 농촌 계몽운동, 혹은 시민 계몽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자칫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추진하는 자에 따라서는 민간 탄압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율곡은 이 점을 분명히 경계하였다.

그래서 그는 “조정과 백관이 아직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먼저 만민을 바르게 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다스리는 것이어서 일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이다. 율곡이 흐린데 어찌 아랫물이 맑게 되기를 바라겠는가? “임금이 마음을 바로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한 뒤에 만민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곡의 한마디 한마디가 일의 순서와 본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기본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율곡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미 성전(盛典, 즉 향약)을 거행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시어 조정에 시행함으로써 정령(政令)이 다 올바른 데에서 나오게 한 뒤에야 백성이 감동되어 흥기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란 향약의 실시를 말한다. 기왕에 추진한 향약을 중지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임금이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도록 건의하였다. 백성들에게 펴고자 한 ‘향약’의 규정을 임금부터 스스로 힘껏 실천을 한 뒤에 조정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뒤에 정부의 정책과 명령이 올바른 데에서 나오게 한다면 백성들도 감동하여 즐거이 향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한다.

요즘의 정치 상황에도 잘 맞는 말이다. 어떤 정치가들은 국민을 계몽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한다. 율곡에 따르면 국민을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국회의원, 정치가, 고위직 공무원부터, 가장 위에는 대통령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바로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한 뒤에 만민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정과 백관이 아직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먼저 만민을 바르게 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다스리는 것이어서 일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본질적인 부분이 우선적으로 잘 다스려진 뒤에야 나라 전체가 잘 다스려진다고 역설한 442년 전 율곡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 지도자는 겸손해야한다

임태홍

율곡은 모두 네 사람의 임금을 모셨다. 중종, 인종, 명종, 선조이다. 그가 과거에 아홉 차례나 장원급제를 한 때는 명종 때였다. 명종 3년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명종 11년에 한성시에 수석합격을 하였으며, 19년에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해 명경시에 또 급제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 아홉차례나 장원 급제를 한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다.

율곡이 장원 급제를 한 시험을 보면 진사 초시, 한성시, 별시, 식년 문과초시, 전시, 복시 등 화려하다. 명종 때 그는 호조좌랑, 예조좌랑, 사간원 정언, 이조좌랑 등에 임명되어 화려한 관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젊고 똑똑한 율곡을 더욱 가까이 두고 국가의 큰 정치에 관여토록 한 것은 선조 대왕이었다. 선조는 명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33세 된 율곡을 사헌부(司憲府)의 지평(持平)에 임명하였다. 이 직책은 사헌부의 정5품 관직인데 보통 젊고 기개가 있는 인재들이 임명된다. 특히 문과 급제자 중에서 청렴 강직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발탁되었다. 새로 맞이한 선조 시대의 대표적인 젊은 관료이자 학자로 율곡이 선택된 것이다.

선조는 반년쯤 뒤에 율곡을 홍문관 부교리 겸 경연시독관(經筵試讀官)로 임명하였다. 홍문관은 집현전과 같은 곳으로 임금에게 간언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겸직으로 임명된 경연시독관은 정5품 관직으로 임금의 공부에 참여하여 임금에게 책을 읽어주고 설명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임금의 선생님이 된 것이다. 경연시독관은 경연이 끝나면 경연에 참석한 대신들과 국가 대사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자문에 응하는 등 중요한 직책이었다. 선조의 율곡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임금의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또 율곡 자신의 임무가 임금을 가르치고 임금의 잘못을 간하는 것이었으므로, 율곡은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직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조 6년, 1573년 10월 12일 경연 때의 일이다.

임금이 경연의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인심(人心, 인간적인 마음)과 도심(道心, 도덕적인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니다. 다만 마음이 생길 적에 도의(道義)로 나타나면 도심이라 하고 식색(食色)과 같은 욕망으로 나타나면 인심이라 하는데, 욕망이 절도에 맞는 것도 곧 도심이다.”

율곡이 이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의리에 대하여 소견이 정밀하신데 어찌하여 이 마음을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옮기지 않으십니까. 요즈음 보건대, 천시(天時)·인사(人事)가 날로 점점 어그러져서 천재지변이 거듭 나타나도 예사로 여겨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강이 풀리고 인심이 흩어져서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니, 임금께서 큰 뜻을 분발하여 퇴폐를 정돈하지 않으신다면 흠더미가 무너지는 형세가 얼마 안 가서 올 것입니다.”

임금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인심과 도심에 대해서 한마디 하였는데, 젊은 율곡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모습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왕 앞에서 다소 지나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율곡은 당시 조정의 안팎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삼품의 홍문관 직제학으로 자신의 맡은 바 임무가 바로 그러한 직언이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선조 1년 때(1568년) 사헌부 지평,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된 뒤에 외할머니의 병환으로 관직을 사퇴하고 강릉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해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으나 선조 3년 때(1570년) 신병으로 사퇴하고 해주(海州)에 가 있었다. 선조 4년 때 홍문관 교리,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이조 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사퇴하고 해주로 돌아가 거기에서 은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선조는 재임 5년차 되던 때(1572년) 그를 다시 사간원 사관, 홍문관 응교, 홍문관 전한 등에 임명하였다. 율곡이 이들 관직을 모두 사퇴하였으나 그 다음해(1573년, 선조 6년) 선조는 다시 그를 직제학으로 임명하여 궁중에 가까이 그를 불러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선조의 신임이 이러하였으므로 거기에 부응하여 나라를 위하고 선조 대왕을 돕는 절실한 마음으로 궁궐 내외부의 사정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간언을 한 것이다.

율곡은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성인(聖人)에게도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반드시 자기보다 어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한마디 선한 말로써 스승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꼴 베고 나무하는 자의 말도 성인이 취택하였던 것입니다. 공자(孔子)가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반드시

탕(湯) 임금의 훌륭한 스승인 이윤(伊尹)과 같아야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면 선한 말이 어디로부터 들어오겠습니까. 반드시 널리 널리 들어서 선한 말을 가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신하들이 다 나의 스승이 되고 선한 말들이 임금의 몸에 모여서 덕업이 높고 넓어지게 됩니다. 이제 전하께서 겸허하고 퇴양(退讓)하시는 것이 하교(下敎)에 나타났으니, 신은 감격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울곡은 임금의 신분이면서 선조가 자신의 직언을 듣고 싶어 하고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다만 겸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면 이는 선을 행할 근본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물러서서 일을 맡기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분발하여 떨쳐 일어날 뜻이 없으면 겸양이 도리어 병폐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의 말씀은 겸허하시지만 공론을 따르지 아니하며, 스스로 옳게 여기고 남을 그르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하자면 도리어 남을 나만 못하게 여기는 병폐가 있는 것이니, 신은 답답합니다.”

선조가 겸허하고 겸손하기는 하지만 공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은 옳고 남은 그르다고 판단하며,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궁중의 병폐가 생기고 나아가 백성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울곡은 임금의 마음가짐이 이러하니 그것이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조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오늘날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세 정승)은 다 인망이 있으니 어찌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봉록만 받아먹고 자 하겠습니까.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여도 임금님의 뜻에 거슬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면 도리어 임금의 덕에 누가 될까 염려하므로 아무 말 없이 답답하게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뜻이 나라가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데에 있다면 대신들도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하고 조정의 신하들도 각각 품은 뜻을 아뢰실 것입니다.”

왕 되는 사람이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으니 모두 답답하게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최고위 관료들인 정승들도 입을 닫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임금이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만약 대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하고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자신의 생각을 각각 다 말한다면 율곡이 이렇게 까지 나서서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율곡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그가 맡은 역할과 임무가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다. 400여년 전,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왕조시대의 일이지만 요즘 되새겨 읽어도 그의 발언은 신선하다.

## “천하의 일은 임금의 마음에 달려있다”

임태홍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통치자인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독재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국가에서 통치자의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가의 세 권력,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뉘어 있는 것은 최고 권력자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대 때부터 훌륭한 정치는 백성들이 그 통치자의 존재를 모르도록 하라는 말이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그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그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통치자다. 가장 좋지 못한 통치자는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통치자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 훌륭한 통치자는 말을 삼간다. 통치자가 훌륭하여 정치가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노자의 말을 빌린다면, 날마다 저녁 아홉시 골든타임 뉴스에 통치자의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송된다면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유교에서 바라는 훌륭한 통치자는 누구일까? 선조 6년(1573년) 10월 어느 날 율곡이 김우옹 등과 함께 선조임금을 모시고 인심도심설 강의를 할 때의 이야기이다.

선조 임금이 갑자기 이렇게 하소연을 하였다.

“우리나라 일은 참으로 하기 어렵구나. 한 가지 폐단을 고치려 하면 다른 한 가지 폐단이 또 생겨, 그 한 가지 폐단이 고쳐지기도 전에 그 폐단을 더하게 되니, 손발을 쓸 수 없구나.”

이이가 이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일이 그렇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에 기강이 서지 않아서 인심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주어 구차하게 자리만 채운 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먹고 지내는 것만을 알 뿐 나랏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폐단을 고치라는 명령이 한번 내려지면, 먼저 꺼리는 마음을

품고서 받들지 않을 뿐더러 고의로 폐단이 생기게 합니다. 이것이 공을 들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울곡이 진단한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 기강이 서지 않았다는 점, 둘째 사람을 잘 가리지 않고 벼슬을 주었다는 점, 셋째, 일부러 폐단을 고치지 않는 개혁 반대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울곡이 선조에게 제시한 처방약은 다음과 같았다.

“위에서 임금이 먼저 스스로 뜻[聖志]을 정하여 반드시 다스려지기를 기원하며, 호오(好惡)·시비(是非)를 한결같이 천칙(天則)을 따라서 공정하게 하여 어지럽지 않게 되면 기강이 확립될 것입니다.”

울곡은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임금이 개혁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세울 것. 그리고 변함없는 원칙에 따라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

임금 자신이 개혁할 뜻은 없으면서 신하들 앞에서 입으로만 백번 개혁을 외쳐본들 궁궐 안 밖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니 국가의 기강이 헤이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듣고 옆에 있던 김우옹이 이렇게 거들었다.

“학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으나 옛사람의 말을 듣고 배워 그 진의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옛글에 해박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선조 임금은 옛글을 읽기만 했지 자신이 몸소 실천하는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제가 보건대, 삼가 임금의 학문이 고명하여 아는 것이 매우 광범위하지만 정사 일에서는 그 보람을 보지 못하니,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인 병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심(正心)·성의(誠意)의 설에 대해 옛사람이 이미 극진하게 말하였는데 이제는 도리어 절실하지 않게 여깁니다.”

선조 임금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여 박식은 하지만 정치에는 그것이 잘 활용되지 못하니 필시 그가 배운 공부에 문제가 있거나 임금 자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랄한 비판을 한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正心], 뜻을 정성스럽게 하라고 옛사람들은 말했으나, 임금은 이 말을 절실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일은 다 임금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의·정심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잘 다스려지기를 기대하여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천만 가지 말이 모두가 매우 절실하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敬)자 하나입니다. ‘경’자는 온갖 선이 있는 곳인데, 경을 논한 말은

매우 많으나 그 가운데에서 이른바 ‘정제(整齊)하고 엄숙(嚴肅)히 하면 마음이 곧 전일(專一)해지고 마음이 전일해지면 그르고 편벽된 것이 절로 없으므로 이것을 간직하면 천리(天理)가 밝아진다.’는 말이 치밀하고 친절하니,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다 여기에 착수해야 합니다.”

뜻을 정성껏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였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편벽된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천리가 밝아진다고 까지 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임금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 선조 임금은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옳다. 마음을 정제하고 엄숙히 하는 것을 어찌하여 착수할 곳이라고 하느냐 하면, 정제 엄숙은 외면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쓰기 쉽기 때문이다. 주일무적(主一無適)은 내면을 말한 것이어서 착수하기 어렵다.”

‘주일무적(主一無適)’이란 성리학에서 ‘경(敬)’자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바깥의 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선조는 이렇듯 아주 깊이 있는 성리학의 가르침을 술술 풀어낼 정도로 박식한 군주였다.

울곡은 이러한 선조 임금에 대해 다시 한번 따끔하게 충고를 하였다.

“마음을 정제하고 엄숙히 하는 것은 겉으로만, 즉 외모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의 모습만 그렇게 가지고, 실질적인 정치는 천리(天理)와 다르게 행하신다면 마음 자체가 원래부터 정제하고 엄숙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성제(成帝)는 조정에 임하면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존엄하기가 신(神)과 같았으나 정치가 엉망이었으니 어찌 그 마음 상태를 경(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조는 이를 듣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 성제의 경우는 마음이 정제하고 엄숙한 것이 아니요. 그의 행동을 기록한 사관(史官)이 그 태도를 잘 수식하여 말하였을 뿐이오.”

선조 임금의 말을 듣고 있으면 잘 배운 학생과 같다. 또박또박 자기 할 말을 다하고, 또 조리에 맞게 말한다. 하지만 울곡이 보기에 는 그것뿐이었다. 울곡은 실질적으로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목격하면서 선조의 부족함을 힘껏 지적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당시는 천하의 모든 일이 임금의 마음에 달려있는 시대였으니 그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 나라에 기강이 없는 이유

임태홍

조선의 14대 국왕 선조(1552년~1608년, 재위 1567년 ~ 1608년)는 서자 출신의 임금이었다. 아버지 덕흥대원군이 중종의 서자였다. 서자란 정실부인이 아닌 첩에게서 난 아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는 차별의 대상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선조는 서자 콤플렉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선조는 특히 유교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성리학을 장려하였으며, 대유학자를 존경하는 한편, 사림들을 널리 등용하였다. 성종 때부터 조선의 정치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림, 즉 유학자들은 선조의 지원을 받아 정치계의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선조는 퇴계 이황(1501-1570), 율곡 이이(1536-1584), 그리고 우계 성혼(1535-1598) 등 대유학자들과 경연을 하고 학문과 역사를 논하기를 좋아했다. 특히 퇴계 이황을 깊이 신뢰하였는데 퇴계가 사망하고 난 뒤에는 율곡을 가까이하고 그의 학문과 사상을 경청하였다. 이 때문에 율곡은 선조를 만나 경연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하여 임금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충언을 거듭하였다. 경연할 때의 모습을 기록한 사료에는 그의 그러한 정성과 충정이 절절히 베어져있다.

경연이 있던 어느 날 율곡이 선조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강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구습을 답습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기대할 것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임금께서 큰 뜻을 분발하여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대신들과 관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일시에 그들이 발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강을 세워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조시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시대이기도 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일본인들에게 능멸을 당한 시대의 임금이 바로 선조이다. 이 시대에 율곡이 살고 있었으니 율곡의 눈에 조선은 얼마나 걱정스럽게 보였을지 짐작이 간다. 임금 앞에서 나라에 기강이 없다는 그의 말은 바로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는 말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기강은 법령이나 형벌로 억지로 확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공정(公正)하게 집행되고 사사로운 정(情)이 행해지지 않아야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公)이 사(私)를 이기지 못하고 정(正)이 사(邪)를 이기지 못하니 기강이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조정의 관리들과 왕족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행동을 하고, 사악한 행위들이 만연하니 국가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한탄한 것이다.

옆에 같이 있던 김우옹이 율곡의 충언을 거들었다.

“오늘날의 폐단은 정말 그 말과 같습니다.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않고 사의(私意)가 횡행하여 세워진 법을 고치려 하면 법이 세워지자마자 폐단이 또 생깁니다. 반드시 임금께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시어 마음에 천리(天理)가 유행하고 인욕(人欲)이 없어져서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바른 도리만이 행해지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다 감동 분발하여 명령이 나오면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뜻을 세워 정심·성익에 힘쓰신다면 사업이 요(堯)·순(舜)·탕(湯)·무(武)를 기약할 것이니, 초 장왕·제 위왕은 말할 것도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헛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堯)·순(舜)·탕(湯)·무(武)는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정치가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왕들이다. 이들처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임금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학에서는 통치자의 마음은 그가 펴는 정치와 별개의 것이다. 통치자의 마음 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자를 둘러싼 정치제도이며, 국가를 경영하는 데 도구가 되고, 지침이 되는 법률이다. 통치자는 제도에 따라 그리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권력을 행사하면 된다.

그렇다면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와 법률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국민에게서 나온다.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입법자들은 국민이 뽑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사법자들 역시 국민이 선임한다. 통치자 역시 국민들이 뽑는다. 민주주의, 즉 백성이 주인인 정치 체제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과거 유학자들의 정치 이야기는 너무도 수동적이고 통치자 의존적이다. 하지만 당시 시대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정치였던 것이다. 소위 유교의 왕도정치이며, 민본정치다.

율곡이 또 이어서 이렇게 왕에게 아뢰었다.

“오직 세종 대왕(世宗大王)의 정치가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그 때에는 사람을 쓸 때, 통상적인 사례에 얽매이지 않고 어진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재능

있는 사람을 부려서 각각 그 능력에 맞게 했습니다.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분수는 정해져 있으니, 오늘날에도 반드시 사람을 가려서 벼슬을 주고 책임을 맡겨 성취를 요구해야 모든 공적이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묘년에 조광조(趙光祖)가 중종의 지지를 받아 큰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선비로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여 소란사태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덕분에 소인들이 틈을 타서 사림(士林)을 해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을 맡은 자들이 기묘년의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묘년의 사람들이 일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으나 어찌 오늘날 전혀 일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왕에게 율곡은 세종대왕 때의 관리 등용 방법, 그리고 조광조 개혁이 실패로 끝난 이유 등을 들었다. 조광조(趙光祖, 1482~1520)는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로 사림파의 정계진출을 확립한 인물이다. 중종의 후원을 받아 홍문관과 사간원에서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관료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적극적으로 성리학을 전파하고 성리학적인 도학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훈구파의 반발로 실패하고, 반란 주모자로 몰려 전라도 화순으로 유배되었다가 처형당하였다.

율곡은 계속하여, 방법이나 절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의 마음과 의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임금께서 큰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몸소 행하여 근본이 맑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많은 신하들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먼저 자기를 닦고 나서 반드시 어진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은 벼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 일을 시행해야 만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전하께서는 진실로 어진 사람을 좋아하십니까만 불려서 벼슬만 시키실 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참으로 도리를 지키는 선비라면 어찌 그런 허례허식을 위해서 벼슬을 하겠습니까?”

당시 선조가 행한 정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직설적으로 언급하였다. 어진사람들을 채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끈질기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율곡도 대단하지만 신하의 따끔한 충고를 진지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듣고 있는 선조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가들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 나라를 부흥시키려면

임태홍

나라가 잘 되려면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자 주변에 모여야 한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먼 장래를 설계하고 계획하여 차근차근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논어』의 「요왈편」에 “가까운 친척보다도 현명한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일가친척이나 혈연 지연으로 주위 참모들을 모을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첩경이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들이 제시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어떠할까? 그래서 당연히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없을 것이다.

율곡은 어느 날 선조 임금의 모시고 『맹자』를 강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율곡은 임금이 훌륭한 사람들을 등용해 놓고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선조가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은 분명히 그렇다. 나도 그 점은 잘 안다. 때문에 지난번에 현명한 사람을 쓰자고 말한 것은 진실로 좋았다. 그러나 사람이 좋기만 하고 일의 경험이 없을 경우에 일을 중도에 너무 지나치게 할까 염려되었다.”

일을 맡겼을 경우, 경험이 없으면 일 추진이 너무 편협하거나 외골수로 지나쳐 그 결과가 어그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율곡이 존경하던 조광조(趙光祖, 1482-1520)가 바로 그런 사례였다. 조광조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상 정치를 꿈꾸고 종종 충애를 받아, 미신을 타파하고 향약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그를 지지한 중종마저 그를 미워하여 결국 유배지 화순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선조는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선불리 일을 맡겼다가 실패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율곡은 이렇게 말했다.

“전하께서 번번이 일이 너무 과하게 지나칠 것만을 근심하십니다. 오늘날 신하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중도에 지나친 일이 생길 경우, 위에서 제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일을 시키고 나서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한다. 그러다 지나침이 있으면 제동을 걸면 되는 것이다. 율곡의 생각은 일을 추진하는 편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선조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다. 고집하는 사람이 제재를 듣지 않고 반드시 제 멋대로 일을 추진해버리면 어찌 하겠는가?”

율곡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

“어찌 일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기까지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미약하여 많은 선비들이 과거급제 만을 출세하는 길로 여기고 있으나 첫째가는 인물들은 반드시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과거로 사람을 쓰는 것은 말세의 관습으로 어찌 성세(盛世)의 일이겠습니까? 혹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자가 대관이 되면 좋지 못한 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시겠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론이 크게 행해진다면 반드시 마땅한 사람이 선발될 것입니다. 공론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문사(文士) 중에도 선하지 못한 자가 많이 있어 중요 직책을 맡게 될 것입니다. 어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만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선조에 대해서 율곡은 과거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율곡은 자신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관직을 얻고 왕과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국가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과거급제자만 우대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며 과감히 일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선조는 아무래도 뒷감당을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사실 선조 대왕은 지금 율곡의 따끔한 충언에 요리조리 변명을 하면서 곤란한 상황을 면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신하가 멋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선조 자신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율곡이 맨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선조는 사람을 임명해놓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곡이 쓴 『만언봉사(萬言封事)』에 이런 말이 나온다.

“전하께서 명철하심에는 남음이 있으나 덕을 베푸심은 넓지 못하며, 선(善)을 좋아하심은 알지 않으나 의심이 많으신 점은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 중에 올바른 의견을 아뢰기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치고 외람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기개와 절조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남보다 빼어나려 애쓰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여러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면 그들이 당파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죄짓고 잘못된 것을 공격하면 그들이 편파적으로 모함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계십니다.”(황의동 저, 『율곡 이이』, 152쪽)

선조 7년(1574년) 정초에 나라에 재난이 심하였다. 그래서 선조는 조정의 관리들부터 초야(草野)의 선비들에게 이르기까지 널리 국난 극복을 위한 직언(直言)을 구하였다. 그때 우부승지(右副承旨)의 직책에 있었던 율곡(당시 39세)은 장문의 상소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만언봉사』다. 거기에서 율곡은 선조의 문제점 중 하나로 마음이 좁고 의심이 많아 신하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율곡이 임금에게, 훌륭한 사람들을 등용해 놓고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자 선조 임금은 요리조리 말을 돌리면서 율곡의 비판을 피해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왕의 변명에 율곡도 지지 않고 끈질기게 왕의 말을 따라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

율곡은 『만언봉사』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좋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익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가 신하가 되었어도 노나라 목공의 영토가 줄어들어 드는 것이 더욱 심하기만 하였고, 맹자가 경이 되었어도 제나라 선왕의 왕업은 흥성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오늘날 진언하는 사람들이란 자사나 맹자 같은 사람들도 아니려니와, 그 말을 채택하였다는 실상에 대해서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황의동 저, 『율곡 이이』, 153쪽)

좋은 참모만 있으면 뭐하겠는가? 그 참모를 활용하여 국가 대사를 운용하여야 나라가 흥성하는 것이다. 퇴계와 율곡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던 선조 시대에 왜 그렇게 정치가 무기력하였는지 율곡의 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 선조 임금과 경연

임태홍

1575년 6월 24일(음력)의 일이다. 이 해는 선조 8년으로 율곡은 40세가 되던 해였다. 이 해 3월 병 때문에 잠시 고향인 파주 율곡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시 서울로 돌아가 임금의 유교 경전 공부인 경연(經筵)에 참가하였다.

당시 부제학의 자리에 있었던 율곡은 김우옹, 정언지 등과 함께 선조 임금을 모시고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교과서는 『상서(尙書)』 강고편(康誥篇)이었다.

『상서』는 『서경(書經)』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유교의 다섯 경전(五經) 중 하나로 꼽힌다.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전해진 이 책은 요순시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이 중에서 요순시대는 신화의 시대다. 실지로 중국 역사는 하나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전통 시대에 지식인들은 요순시대가 실지로 존재했고 이상적인 통치자인 요임금과 순임금도 실재하였다고 믿었다.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불린다. 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 ~ 1046년경에 존재한 중국 최초의 왕조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은(殷)이었기 때문에 은나라로 불리는데, 은의 유적지에서 갑골문이 발견되어 세상의 이목을 집중한 바 있다. 상나라는 중국 중원지방의 동쪽 지역에 근거하였는데, 서쪽지방에 주나라가 등장하여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켰다. 주나라 무왕은 상나라를 물리친 뒤에 그 땅을 나누어 자기 친족과 부하들에게 분배하였다.

예를 들면 제나라 지역은 건국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강태공에게 주고, 노나라 지역은 주나라 천자 무왕의 동생인 주공 단에게 주었다. 이렇듯 점령지 땅의 일부를 떼어 부하나 친족에게 통치를 맡기는 제도를 분봉(分封)제도라고 한다. 그 땅은 봉토(封土)라고 하며, 그 땅을 통치하는 자를 제후(諸侯)라고 한다. ‘후’라는 글자가 임금을 뜻하므로 ‘제후(諸侯)’란 여러 임금, 혹은 임금들이라는 뜻이다. 봉토를 천자로부터 하사 받아 그 땅을 임금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통치하는 제도를 봉건제도(封建制度)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는 종법제도라는 혈연 기반의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종법제도는 천하와 그 소속 국가들의 관계를 종갓집, 즉 큰집과 작은 집의 관계로 규정한다. 모든 나라는 큰집인 천자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작은 집의 역할을 한다. 큰집에 경사가 있을 경우는 사신을 파견하여 축하하고, 변란이 있을 경우에는 군대를 파견

하여 지키는 것이다.

선조 임금의 율곡 등과 그날 같이 읽은 『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봉아, 너는 잘 생각하라. 이제 백성들은 너의 부친 문왕을 공경하고 따르는데 달렸으니 들은 바를 계승하고 덕이 될 말을 실행하라. 가서 은나라의 옛 어진 왕들에게 널리 도움을 구하고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대는 멀리 은나라의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마음을 정하고 교훈을 삼아라. 옛 어진 왕들에 대해서 널리 듣기를 구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보호하며 하늘같이 크게 되게 하라.”

여기서 봉은 주나라 첫 번째 왕의 마지막 아들로 송나라에 책봉된 인물이다.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장악하였는데 은나라 유민들이 많은 송나라 지역에 봉을 새 임금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래서 유민들이 은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널리 구하라고 한 것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덕이 풍부해지면 임금의 명령을 지키고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임금(주나라 천자)께서 이르시길, 오호라 봉아! 내 몸에 병을 앓듯이 하여 공경할지이다. 하늘은 두렵지만 진실로 도우려하고, 백성들의 정은 대략 알 수가 있느니라. 내가 듣건대 원망은 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곳에도 있는 것이니, 따르지 않는 이는 따르게 하고 힘쓰지 않은 이는 힘쓰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그대여! 일 할 때에 임금의 뜻을 넓히고 은나라 백성들을 받아들여 보호하라. 또 오직 임금을 도와 하늘의 명을 안정시키며 백성들을 새롭게 하라.”

이러한 문장을 선조 임금과 함께 읽고 율곡과 김우옹, 정언지 등 신하 선생님들의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임금을 모시고 신하들이 유교 경전이나 역사 서적을 읽고 임금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제도를 경연(經筵)제도라 한다. 고려시대에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 그 제도가 정비되고, 강화되어 소위 경연정치가 활성화되었다. 경연정치라 함은 경연을 하는 장소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율곡이 사망한 뒤의 일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경연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1594년(선조 27년) 7월 9일에 대사헌 김우옹(金宇顛)등이 경연을 열자고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하였다.

“생각하건대 옛날에 지혜로운 군주는 전쟁과 혼란한 세상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두어 계속 학문을 힘썼습니다. 이는 옛날 일을 거울삼아 근본을 배워서 국가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경연을 열지 않은 지가 이미 3년입니다. 전하의 학문이 이미 고명하고 전하의 인덕(人德)이 이미 넓다고 하라도 마음의 은미한 곳이 어찌 다 도리에 부합되고 호령과 시행이 어찌 다 적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궁중에서의 사사로운 자리가 어찌 다 올바르고, 관직의 임명과 파면의 상벌에 어찌 다 사심이 없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면 학문을 하는 공이 중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하늘의 뜻을 누리고 인심에 보답하겠습니까?”

그동안 삼년 동안이나 경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그 때문에 궁중에서 이루어진 정치, 예를 들면 관직의 임명이나 파면 등에 사사로운 결정이 없었는

지 물었다. 그동안의 결정에 하나라도 잘못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경연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반문하였다. 이렇듯 경연은 대궐에서 이루어진 사사로운 결정에서부터 관리의 임면,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등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김우옹 등은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하였다.

“앞으로는 부디 편전(便殿)에 나오셔서 경연을 열고 공경(公卿)에서부터 유신(儒臣)까지 날마다 돌아가면서 모시게 허락해 주십시오. 서로의 생각을 물어 의리(義理)가 정밀해지게 하고, 또한 정령(政令)의 득실, 민간의 고통, 군무(軍務)의 결함에 대해서도 모두 터놓고 말하게 하고 서로 의견을 절충한다면 많은 계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의 정치가 새로워 질 것이니 왜구의 환난을 해결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민본정치란 민본(民本), 즉 백성을 근본으로 삼기는 정치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치와는 다른 것이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백성을 중시하는 정치제도를 발전시켰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경연제도였다. 경연의 목적은 임금을 공부시키는 것이었지만, 임금과 그를 둘러싼 궁중 측근들의 정책과 결정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평가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 조선시대의 민본주의 제도 - ‘경연’

임태홍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군주제는 이와 달리 한명의 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돌아간다. 그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 없이 군주의 마음대로 모든 국가의 대사가 운영된다. 전통시대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임금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군주제 국가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군주제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군주의 권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사관이 왕의 일상사와 언행을 기록하는가 하면, 왕을 덕이 있는 군주가 되어 덕치정치를 하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임금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관리를 두어 임금의 잘못을 따지도록 하기도 하였다.

왕을 가르쳐 덕치 정치를 펴도록 하는 제도는 경연(經筵)이다. 오늘날도 가끔 형식적으로나마 대통령이 석학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뿐이다. 조선시대에는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료까지 두면서 임금을 가르쳤다.

율곡과 관련된 역사기록을 보면 율곡이 경연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는 기록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1575년 6월 24일(음력)에는 율곡이 경연에 참석하여 임금과 함께 『상서』를 읽는 기록이 있다. 또 그 이전인 1569년 9월 25일 기록에도 경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날 율곡은 선조에게 “예로부터 큰일을 성취한 군주가 정치를 흥기시키려 했을 때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현자를 대하였습니다. 군신간의 주고받는 대화는 마치 메아리 울리듯 하였으며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 아래가 서로 믿게 되어 정치가 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군자가 현자를 섬기고 군신(君臣)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경연을 설명한 것이다.

율곡은 또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신이 여러 차례 궁궐에 들어와 전하를 뵈었는데 항상 신하들의 말에 조금도 응수하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개 한 집안의 부자(父子)와 부부가 아무리 지극히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만약

아버가 자식에게 답하지 않거나 지아버가 아내에게 답하지 않으면 그 정(情)도 막히게 됩니다. 하물며 그 이름과 위상이 현격히 다른 군신(君臣)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1569년은 율곡은 34세 되던 해로 궁궐에 들어와 선조를 가까이서 모신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그는 29세 때 호조좌랑으로 처음, 관계에 진출한 뒤로 30세 때 예조좌랑, 31세 때 이조좌랑, 그리고 32세 때 사헌부 지평, 홍문관 부교리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에 임명되었다. 이 해에 선조는 임금이었다. 율곡은 임금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선조의 과묵한 모습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그리고 율곡은 경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 신하가 임금님의 얼굴을 뵈게 되는 것은 경연(經筵)뿐이기 때문에 입시하는 신하들이 미리 아뢴 내용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궁리하고 정리해 놓았다가도 임금님의 앞에만 오게 되면 그 위엄에 겁을 먹고는 하고 싶은 말도 다하지 못하여 10분의 2~3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대왕께서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응수를 해주신다 해도 오히려 아랫사람들의 뜻이 통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입을 꼭 다물고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말을 막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경연을 준비하는 신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아무리 유학 경전을 잘 읽는 신하라도 임금님 앞에서는 그 위엄에 눌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의 응대가 쌀쌀하니 그 신하들, 즉 선생님들은 더 주눅이 들어 입을 닫아 버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율곡은 임금에게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급히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팔짱만 끼고 아무 일도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선조 대왕이 명종 대왕(明宗大王)으로부터 2백 년 조선의 우환을 받은 것이지 즐거운 세상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선의 운명이 날로 위태로워지는데 임금께서는 어찌해서 발분하지 않는 것인지 물었다.

이렇듯 경연제도란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도 뒤떨어지지 않은 백성을 위하고 군주의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였다.

경연의 방법은 대체로 세종대왕과 성종대왕의 시기에 정비되었다. 경연은 시간에 따라 아침에 하는 조강(朝講), 낮에 하는 주강(晝講), 저녁에 하는 석강(夕講)으로 나뉜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차례, 혹은 두 차례의 경연을 하다가 차츰 성종 시기에 이르러, 하루에 3차례 경연을 하는 방식이 확립되었다. 경연에 참석하는 관리는 초기에는 6, 7명 정도였으나 차츰차츰 더 많은

관리들이 경연에 참가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부, 승정원, 홍문관, 사헌부 등의 고위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경연 자리가 자연스럽게 정부 부서 간의 정책 협의 기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율곡이 사망한 뒤의 1581년(선조 14년)에는 율곡의 친구이기도 한 우계(牛溪) 성훈(成渾)이 참석하였는데 그는 당시 관리의 신분이 아니었다. 그동안 경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관료들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재야의 성훈이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후 재야 학자들이 자주 초빙되었다.

경연에 사용된 교재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4서(四書)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의 5경(五經), 그리고 역사서적인 『자치통감(資治通鑑)』,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등이었다. 말하자면 주로 유교 경전과 역사서적이다. 『자치통감』은 중국 송나라의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역사서이며,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남송의 주희(朱熹), 주자가 쓴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임금의 경연에는 유교와 관련된 책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텍스트 외에도 『성리대전(性理大全)』, 『근사록(近思錄)』, 『소학(小學)』, 『심경(心經)』, 『대학연의(大學衍義)』, 『정관정요(貞觀政要)』, 『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이 부교재로 사용되었다.

강의를 하는 방식은 먼저 한 사람이 교재의 원문을 읽고, 번역을 한 뒤에 설명을 한다. 그 다음 국왕이 잘 모르는 점에 대해 질문을 하면, 참석자들이 보충 설명을 한다. 역사서는 통독(通讀)을 하고 사서와 오경의 경우에는 주석서를 읽어 그 뜻을 풀이하였다. 물론 당시 중요시된 주석서는 주자의 주석서로, 그 서적을 통해서 주자학, 즉 성리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배워나가는 것이었다.



## ‘간언(諫言)’듣기를 싫어한 선조

임태홍

당 태종의 언행을 기록한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이런 말이 나온다.

“간언(諫言)이란 군주나 웃어른에게 충고하는 것을 말한다.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생김새를 볼 수 없듯이 신하들의 간언이 없으면 정치적 득실에 관해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시세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진 신하의 충언은 군주를 바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천하를 태평성대로 만들 수 있다. 간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충성스런 간언을 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언(諫言)’의 간(諫)자는 말씀 언(言)과 가릴 간(柬)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릴 간은 ‘분간하다’는 뜻도 있다. 즉 간언이란, 분간하는 말, 혹은 분간하고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말을 뜻한다.

『정관정요』의 ‘정관(貞觀)’은 당나라 태종의 연호이며, ‘정요(政要)’란 ‘정치의 핵심’, 혹은 ‘정치의 요체’라는 뜻이다. 『정관정요』는 제왕학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데, 당 태종이 부하 관료들과 정치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를 엮은 책이다.

『정관정요』의 설명에 따르면 신하들의 간언이 없다면 거울 없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자신이 행하는 정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신하들이 간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정관정요』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군주는 신임하지 않는 자가 간언하면 비방한다고 생각하고 신임하는 사람이 간언하지 않으면 봉록만 흠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성격이 연약한 사람은 속마음이 충직해도 말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한 이는 신임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군주가 먼저 신하를 믿고 간언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경연제도와 함께 ‘간언’제도도 왕권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중시되었다. 율곡이 참여한 1575년 6월 24일의 경연에 율곡과 선조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오고갔다.

율곡: 근래에 대간(臺諫, 간언을 담당하는 관리)이 말하는 것을 임금께서 따르지 않는 것이 많아 인심이 자못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선조: 이는 내가 불민한 탓이다. 그러나 요임금, 순임금 때에도 그 말이 틀리다고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니, 어찌 항상 한갓 그렇다고 따르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율곡: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따라야 할 일은 속히 따르셔야 합니다.

율곡이 임금께서 간언을 담당하는 관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선조는 항상 따르기만 해서는 되겠는가하고 묻는다.

같이 경연에 참석했던 김우옹이 율곡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기강은 오로지 대간에게 달려 있으므로 대간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대간의 간언을 받아들여 그 사기(士氣)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선조임금은 간언을 자주 듣는 것이 싫었던지 다시 이렇게 말했다.

“대간의 말도 옳지 않은 것이 많다.”

임금의 고집스러운 발언에 율곡이 또 나서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였다.

“대간의 말에 잘못이 있으면 따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말이 항상 그럴 것이라 하여 처음부터 듣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율곡은 대간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렇게 간언을 하였다.

“지금 백성들이 초췌하여 지고 기름진 땅과 연못이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조정에서 비록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나 은택(恩澤)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않아, 마을마다 원망하고 근심하는 소리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조정이 깨끗하고 밝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해서인데, 백성이 이와 같으니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인심이 바르지 않습니다. 관리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법령은 행해지지 않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성심으로 백성을 위하시고 근본을 바로잡아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선조 27년(1594년) 7월 9일의 왕조실록 기사에도 조정의 언로(言路)와 간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다.

“십수년 이래 사대부들 사이에는 말을 하는 것을 기피하여,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는 어물어물 우유부단하여 구차스레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대성(臺省, 사헌부와 사관원)에 있는 자는 시세에 따라 부침(浮沈)하여 좋은 벼슬을 보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갈수록 심합니다. 그 폐단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는 허물을 들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전하께서 허물을 들을 수 없어 국사가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신들은 저도 모르게 모발이 송연해집니다. 더구나 지금은 형세가 매우 위급하여 이미 다 전복되었으니 이야말로 사람들이 스스로 분발할 것을 생각하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임금에게 따지고 책망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전하께서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을 채용하여 시행하셨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습

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말을 하였으나 취할 것이 못 되어 그런 것입니까?”

율곡도 선조대왕이 훌륭한 인물들을 등용한 뒤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으나, 이 상소문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1594년은 율곡이 사망한 뒤 10년이 지난 때인데, 이때도 선조는 신하들의 간언 듣기를 싫어했던 것이다. 『정관정요』의 문구에서 보았듯이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생김새를 볼 수 없듯이 신하들의 간언이 없으면 정치적 득실에 관해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정관정요』는 “시세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진 신하의 충언은 군주를 바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천하를 태평성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는데 조선의 선조는 간언 듣기를 싫어하여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일본의 침략을 허용하여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니, 참으로 우둔한 군주였다고 할 수 있다.

## 전통시대의 공부법

임태홍

선조가 어느날 경연의 자리에서 갑자기 율곡에게 이렇게 물었다.

“항상 어떤 책을 읽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슨 책인가?”

율곡이 아홉 번이나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경연을 할 때마다 논리정연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을 보고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지 궁금해진 것이다.

율곡이 이렇게 대답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 읽은 것은 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때 읽은 책들은 제외합니다. 학문에 뜻을 둔 뒤로는 『소학(小學)』에서 시작하여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까지는 읽었으나, 아직 『중용(中庸)』은 읽지 못하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아도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육경(六經)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조 8년, 즉 1575년 6월의 일이므로 당시 율곡은 40세 되던 해였다. 그는 그보다 3년 전에 친구인 우계 성혼과 더불어 성리학의 심오한 이론인 이기설(理氣說)과 사단칠정(四端七情), 그리고 인심도심(人心道心) 등의 학설을 논하여 우리나라 성리학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후였다. 그러한 그가 솔직하게 『맹자』까지 읽고 『중용』은 자꾸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육경은 아직 읽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율곡이 말한 책 중에 『대학』이란 어떤 책일까?

『대학』은 원래 오경 중 한권인 『예기(禮記)』에 들어 있던 글이다. 제42편의 글인데 그것을 송나라 사마 광(司馬光)이 처음으로 뽑아내서 『대학광의(大學廣義)』란 책으로 만들었다. 이 후 주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만들었는데, 경(經) 1장(章), 전(傳) 10장으로 구성하고 주석(註釋)을 더하였다. 경에는 소위 3강령 8조목이 제시되어 있다. 3강령은 명명덕(明明德, 명덕을 밝히는 일), 신민(新民,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 지어지선(至於至善, 지선에 머무르는 일)이며, 8조목은 격물(格物) · 치지(致知) · 성의(誠意) · 정심(正心) · 수신(修身) · 제가(齊家) · 치국(治國) · 평천하(平天下)이다.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문서로 『대학』이 중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잘 읽음으로써 배움의 기초 토대가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상황도 율곡과 같았다. 그들은 대개가 육경보

다는 사서를 중시하였으며, 특히 주자학에 집중하여 성리학 관련 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학문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선조가 다시 물었다.

“사서(四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중에서 어떤 글을 가장 좋아하는가?”

율곡이 이렇게 답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하나만을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가에 『근사록(近思錄)』·『심경(心經)』 등의 글을 읽고 있으나 질병과 공무(公務) 때문에 전념(專念)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율곡은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병 때문에 자주 사직을 하고 고향인 파주로 내려가 그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건강을 되찾았다. 『근사록』은 북송 시대의 사상가들인 주돈이와 장횡거(張橫渠), 정명도(程明道) 그리고 정이천(程伊川)의 저술과 어록(語錄)을 발췌하여 편집한 책인데, 1175년경에 주희(朱熹)와 여동래(呂東萊)가 함께 만들었다. 『심경(心經)』은 남송의 학자 진덕수(眞德秀)가 사서와 삼경(三經), 악기(樂記) 등의 서적과 주돈이, 정호, 정이, 주자 등의 글에서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요컨대 율곡은 성리학의 사상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근사록』과 『심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임금이 이렇게 물었다.

“어렸을 때 문장을 익힌 적이 있는가? 그대의 문사(文詞)를 보건대 매우 좋은데, 따로 배운 적이 있는가?”

율곡은 어려서부터 시문을 잘 지었다. 그가 과거에 아홉 번이나 급제한 것은 그러한 문장 실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율곡은 임금의 칭찬을 듣고 이렇게 답하였다.

“저는 어려서부터 문사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어려서는 불교의 선학(禪學)을 자못 좋아하여 여러 경(經)을 두루 보았으나 착실(着實)한 곳이 없음을 깨닫고 유학(儒學)으로 돌아와서 우리 유학의 글에서 그 착실한 이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장을 위하여 읽은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 문장을 짓는데 대략 문리(文理)가 이루어진 것도 역시 별도로 공부를 한 일은 없고, 다만 일찍이 당나라 한유(韓愈)의 문장과, 『고문진보(古文眞寶)』, 그리고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의 대문(大文)을 읽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학자들은 대개 율곡이 말한 것과 같은 책들을 읽고 기초 교양을 쌓았다. 한문 문장도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 문장의 조리를 터득하였다.

명종 12년, 즉 1557년 8월 1일의 역사 기록을 보면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즉 유생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학자는 몸가짐을 근본으로 삼고 문예를 말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친구사이에는 서로 이것으로 책망하고, 스승과 웃어른은 먼저 아이들에게 『소학』을 가르쳐 그 근본을 세우고 다음으로 『대학』을 가르쳐 그 규모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논

어』·『맹자』·『중용』을 모두 주자가 정한 차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차례를 뛰어넘는 버릇을 없앤 다음에 경·사·자·집(經史子集)을 섭렵하여 박학하게 한다면, 심지(心地)가 고명해져 문사(文詞)에 발하면 찬연히 문채가 있어 볼 만 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선비를 가르치는 방법은 여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율곡도 문장 공부를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당시 학자들은 문장 잘 짓는 일을 말단으로 삼았다. 문장에 힘을 쏟기보다는 몸가짐, 즉 유교적인 수양 공부에 더 힘썼다. 그리고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의 순서로 배웠다. 이러한 순서는 주자가 정한 것이다. 이러한 공부를 마친 뒤에 비로소 각종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서적을 읽어나가는 것이다. 율곡은 『중용』의 단계에서 머물며 주자의 성리학에 대한 이론 공부에 천착한 것으로 보인다.

## “지도자는 인자해야 한다”

임태홍

율곡은 29살 때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가 여러 차례 과거에 급제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 즉 ‘아홉 번이나 장원에 급제한 사람’이란 영광의 호칭을 얻게 되었지만 30대 초반까지는 아직 하급관료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퇴계 이황(1502-1571)과 고봉 기대승(1527-1572)이 대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율곡도 퇴계의 명성을 듣고 있어서 23살 되던 1558년에 퇴계를 방문하여 가르침을 청한 바도 있었다. 퇴계는 성리학의 이기설(理氣說)에서 리(理, 이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즉 리와 기는 서로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 즉 발동(發動)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율곡은 이를 과감히 수정하여 ‘리’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지 혼자서 주체적으로 발동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기일도설(理氣一途說)을 제창하였다. 기가 발동하면 리는 거기에 편승할 뿐이라는 ‘기발이승(氣發理乘)’이라는 표현은 율곡의 그러한 사상을 대표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나 이 우주공간에는 사물들이 어떤 원칙이 없이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어떤 원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달은 언제나 지구 주위를 규칙적으로 돌아간다. 달이 어느 날 지구를 떠나서 태양을 돌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럴 수 없다. 퇴계의 경우는 그 ‘규칙’이나 ‘원리’를 중시하여 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한다. 그런데 율곡은 지구나, 달, 태양 즉 물질적인 것을 중시했다. 지구나 달, 태양이라는 물질이 없다면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규칙’이나 ‘원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질이 있어야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사상은 나중에 조선시대 유학의 대표적인 두 견해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 사람들의 인식을 그렇게 바뀌게 하였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율곡의 선배학자인 퇴계가 임금인 선조를 향해서 ‘인자한 임금이 되시오’라고 가르친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선조 1년인 1567년 겨울(음력 11월 17일)에 있었던 이야기다.

선조가 글 잘하는 신하들, 즉 이황과 기대승 등에게 『대학』을 배운 날이었다. 공부 장소는 비현각(丕顯閣)이었다. 선조실록에는 왕이 ‘소대(召對)’하였다고 하였는데, 소(召)는 부를 소, 대(對)는 대면할 대이니 비현각으로 불러서 대면하였다는 뜻이다. 비현각은 어떤 곳일까?



경복궁의 사정전 동쪽에 동궁이 있다. 동궁(東宮)이란 왕세자가 거처하는 곳으로 왕의 동쪽 궁궐에서 왕의 뒤를 이을 세자가 거처하면서 임금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곳이다. 왕세자가 거처하는 곳은 자선당(資善堂)이며, 그 한 칸에 공부하는 비현각이 있다. 위의 사진에 나오는 건물은 1999년에 복원된 것이다.

선조는 임금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동궁이 편했던 모양이다. 동궁의 비현각으로 학자들을 불러 『대학』 공부를 하였는데, 이곳에서 이날 선조가 공부한 『대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어짐으로 이끄니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 걸임금과 주임금이 천하를 포악함으로 이끄니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 그러나 임금이 명령하는 것이 임금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에게 <선을> 갖추고 난 뒤에 남에게 요구하였으며, 자신에게 <악이> 없는 뒤에 남을 비난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능히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데 있다.(堯舜, 帥天下以仁, 而民從之. 桀紂, 帥天下以暴, 而民從之. 其所令, 反其所好, 而民不從. 是故, 君子有諸己而後, 求諸人, 無諸己而後, 非諸人. 所藏乎身, 不恕, 而能喻諸人者, 未之有也. 故, 治國在齊其家.)

이 앞에 나오는 『대학』 문장을 보면 “한 집안이 어질게 되면 한 나라가 어질게 되고, 한 집안이 사양하는 것을 중요시하면 한 나라가 그렇게 된다. 한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어그러지면 한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 일의 모양세가 이와 같다. 이것을 일러 ‘한 마디 말이 일을 가르치기도 하며, 한 사람이 한나라를 안정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一家仁, 一國興仁. 一家讓, 一國興讓. 一人貪戾, 一國作亂. 其幾如此. 此謂,



一言僨事, 一人定國.”라고 하여 어짐과 사양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퇴계 이황은 이러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왕에게 설명했다.

“임금이 되면 어질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인(仁)자는 임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임금이 되면 어질어야 한다.’는 말은 대학의 앞쪽(「전삼장(傳三章)」)에 나오는 말이다. ‘임금이 된 자는 어질어야 한다. 신하가 된 자는 공경스러워야 한다. 아들은 효성스러워야 하며, 부모는 자애로워야 한다. 사람들과 사귄 때는 믿음직스러워야 한다.(爲人君, 止於仁. 爲人臣, 止於敬. 爲人子, 止於孝. 爲人父, 止於慈. 與國人交, 止於信.)’ 이러한 말 중에서 ‘임금은 어질어야 한다’는 문장을 든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었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운 것(仁義禮智)은 인간의 본성(性)에 있는 네 가지 덕(四德)입니다. 그런데 ‘어짐(仁)’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짐은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은 바로 본성(性)이고, 그것이 말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정(情)입니다.”

명종이 그해 여름에 사망하고 정조가 그 뒤를 이었다. 여름에 명종이 사망하자 조정은 즉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선의 새 왕을 책봉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정식 허가가 난 것은 11월이 되어서였다. 당시 국제관계는 오늘날과 달리 명나라의 천자로부터 임금의 정통권을 받아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선조가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조선의 국왕이 된 것은 11월이었다. 11월 17일의 『대학』 공부, 특히 ‘임금은 어질어야 한다’고 하는 공부는 16살의 나이로 조선의 14대 국왕으로 막 등극한 선조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였을까? 아마도 백성을 위해서 훌륭한 정치를 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결의에 찬 각오였지 않았을까?

## 나라가 멸망하는 길

임태홍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에도 현대에도 나라의 멸망은 바로 자기 자신, 나아가 자기 가족, 친척, 그리고 자기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자들이 오래전부터 나라가 멸망하는 일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해왔다. 예를 들면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라 안에는 법도를 잘 지키는 신하와 보필을 잘 해주는 신하가 없고, 나라 밖에는 적국이나 외환이 없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入則, 無法家拂土, 出則, 無敵國外患者, 國恒亡.)”

안으로 지혜로운 신하가 없고 법률이 무시되고, 밖으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다면, 즉 무사태평하다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다.

『관자』도 나라의 지도자가 군비폐지를 귀담아 듣고, 나라 안 밖으로 차별 없는 사랑을 부르짖으며, 일상생활을 탐닉하고 사사로운 논의를 귀하게 여기며, 황금과 재물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고 즐기는 것에만 집착하며, 궁중에는 벼슬의 청탁이 횡행하고 야침과 허물을 덮는 일이 만연하면 국가는 멸망의 길을 걷는다고 하였다.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았던 춘추전국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오늘날의 상황에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조선이 일본에 군사적으로 압도당하여 멸망의 길에 놓이게 된 것은 선조 때의 일이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으며, 선조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선조 초년에 있었던 경연의 기록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 퇴계 이황이 참석했던 1567년 겨울 11월 17일(음력)의 기록이다.

“천지는 만물을 생성(生成)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변화와 운행이 잠시도 쉬지 않고, 만물이 각기 성명(性命)을 바르게 가지니 이것이 이른바 인(仁)입니다.”

성명(性命)이란 본성과 본래 지니고 태어난 운명적인 것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그러한 본래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인자함(仁)이라는 것이다. 엉뚱하게 사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도덕적인 품성 중 하나인 인자함을 언급한 것은 사물과 인간을 하나의 범주에 넣어서 설명하려는 것으로 성리학의 큰 특징 중 하나다. 퇴계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은 처음 개벽한 이래 거칠고 소박할 뿐이었는데 복희(伏羲)에 이르러 팔괘(八卦)를 그리고, 신농(神農)이 온갖 풀을 맛보아 의약을 제조하였으며, 황제(黃帝) 때에 비로소 제도를 만들고, 요순(堯舜) 때에 인문(人文)이 크게 갖추어졌습니

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제위를 물려주면서 ‘진실로 중(中)을 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순임금이 우(禹)임금에게 위를 물려주면서 ‘인심(人心)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심(道心)은 은미하기만 하니 오직 정밀하고 전일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여 그 당시에는 제왕이 서로 전하던 법을 중(中)자로서 말하였습니다.”

퇴계가 말하는 복희, 신농, 황제, 요임금, 순임금은 중국의 역사에서 실존한 인물들은 아니다. 우임금은 하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왕인데, 중국의 역사는 이 하나라에서 시작하여 은나라(상나라), 주나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왜 퇴계는 이들을 언급하였을까? 중국의 철학자들, 즉 공자, 맹자 이후로 주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실존했던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쫓은 것이다. 중국인들은 특히 요, 순, 우 등의 임금을 이상적인 정치가로 보았으며, 요순시대와 같은 사회를 중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표로 삼았다.

퇴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갔다.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을 위하여 홍범(洪範)을 진술했는데 ‘임금은 그 극(極)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 때에는 극(極)자로 말했습니다. 공자에 와서 비로소 인(仁)자를 말했는데 공자 문하의 제자들 역시 ‘인’을 많이 질문했으며, 맹자(孟子)에 이르러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아울러 말하여 그 뜻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은 임금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하니 한번 호령하고 한번 생각하는 때에도 모두 ‘인’으로 마음을 삼아야 합니다.”

기자는 조선으로 망명하여 기자 조선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은나라 말기의 인물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주나라의 창건자 무왕을 위해 공헌을 하여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인 주(紂)를 벌하고, 기자를 조선에 책봉하였다고 한다. 그 기자가 말한 ‘극(極)’이 나중에 공자, 맹자에 이르러 인(仁)사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퇴계는 또 이렇게 말했다.

“임금의 악덕 중에 욕심 많고 사나운 것이 가장 큼니다. 임금은 항상 본심을 단정히 하고 근원을 맑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난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 경우는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입니다. 후세의 임금들은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을 행하면 망해가는 나라도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실로 조그마한 악이라도 있게 되면 아무리 굳건하던 나라도 역시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나라가 안정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는 그 나라 임금이 정치를 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랐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선조가 퇴계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25년 뒤, 즉 1592년에 조선이 일본의 군대에 멸망의 문턱까지 가게 된 것은 선조가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혹시 퇴계에게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선조의 마음가짐이 왕이 된 첫해부터 시작해 차츰차츰 헤이해진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조 1인에

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조를 둘러싼 신하들, 특히 정책을 검토하고 추진한 신하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며, 더 크게는 당시의 대학자들 예를 들면 퇴계 이황이나 고봉 기대승 등과 같은 대학자들에게도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한 책임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 선조를 가르치게 된 율곡은 어떤 방도를 제시하였을까? 크게 보면 같은 성리학자로서 율곡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율곡 나름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율곡의 문장을 읽는 묘미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요임금과 순임금

임태홍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군주는 요임금과 순임금이다. 이들 두 임금은 그 실체가 모호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실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은 항상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인들이 이들 군주를 실존의 인물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까지 쫓아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 고대의 통치자들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삼황오제(三皇五帝)’로 불렀다. 세 사람의 황제와 다섯 사람의 임금들이다. 이들은 중국문명을 만들어낸 시조, 혹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위인들로 칭송을 받는다. 삼황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을 그리고 오제는 복희, 신농, 황제(黃帝), 당요(唐堯), 우순(虞舜)을 꼽는다. 당요는 당나라 요임금, 우순은 우나라 순임금을 말한다. 이중 황제는 중국문명의 아버지로 추앙되며, 최근에 부쩍 중국 전역을 통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삼황오제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학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정치권 일각에서 실존하는 인물로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으로 굳건히 통합된 중국을 만들기 위한 사상적 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논어』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왈편에서도 요임금, 순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요임금이 말했다. “아아, 순(임금)이여. 하늘이 정한 운수가 그대에게 있으니, 중용의 도를 지키도록 노력하라. 천하가 곤궁해지면 하늘이 준 복록도 영원히 끊어지리라.” 순임금이 그대로 우왕에게 일러주었다.

(우임금의 뒤를 이은) 탕임금이 말했다. “이 탕은 삼가 검은 황소를 바쳐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아뢰입니다. 죄인은 용서하지 않겠으며, 상제님의 신하는 모든 것을 감추지 않겠으며, 모든 것을 상제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게 죄가 있다면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고,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모두 제게 있습니다.”

탕 임금은 은나라 창건자를 말한다. 탕임금이 한말도 사실은 신화에 가까운 것이지만, 중국인들은 이 기록을 사실로 보고 요임금, 순임금 등과 함께 흠모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 고대의 성군들의 사상적 특징은 철저하게 백성 위주, 백성 중심이

라는 것이다. 즉 민본(民本)사상의 실천자들이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정치를 행한 성군의 모범으로 그들을 흠모한다. 위에 든 인용문에서도 탕임금은 자신 죄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요, 백성들의 죄도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있을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도 이러한 임금을 이상적인 군주로 생각하고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조선의 왕들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경연에 참가한 학자들은 왕에게 고전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그러한 군주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선조 1년(1567년, 11월 17일)의 경연자리에서 선조 임금은 학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요임금과 순임금도 서로 비교해보면 우열이 있는가?”

당시 경연에 참석 중인 고봉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이 이렇게 답했다.

“어찌 우열이 있겠습니까.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요·순은 다 같이 ‘생지(生知)’의 성인이라 실로 우열이 없습니다.”

생지(生知)의 성인이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인을 말한다. 정상적인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백지상태에서 태어난다. 그 뒤에 언어를 알고, 지각을 갖게 되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구축해간다. 그런데 당시 대학자로 존중을 받은 기대승은 복희·신농·황제·요·순을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성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오제는 어차피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어떤 상태였는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우열은 없을 수밖에 없다.

기대승은 이어서 “다만 우(禹)의 덕은 무왕(武王)과 비슷하고, 문왕(文王)의 덕은 요·순과 비슷합니다. 만약 탕왕(湯王)이나 무왕을 요·순에 비교한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우왕은 하나라를 창건한 임금이며, 탕왕은 은나라를 창건한 임금이고, 무왕은 주나라를 창건한 임금이다. 소위 하·은·주 3대의 창건자들이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실체가 인정되지만 유교 경전에 언급된 이들의 말이나 인물 묘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설인 경우가 많다. 기대승이 말한 문왕은 무왕의 부친으로 주나라의 창건 기틀을 만든 인물이다. 그래서 문왕은 요임금과 순임금의 위치까지 올려서 칭찬했다.

선조 임금은 기대승의 설명을 듣고 다시 이렇게 물었다.

“요임금과 순임금 중에 누가 나은가?”

앞의 질문이나 별반 차이 없는 질문이었다. 아무래도 선조에게는 기대승의 설명이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기대승도 그것을 느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다.

“요순시대는 1년으로 말한다면 4월과 같은 때입니다. 요임금의 덕은 공손하고 총명하고 우아하고 신중하시어 온유하셨습니다. 순임금은 여러 가지 고난을 두루 경험하여 농사짓고 질그릇 굽고 물고기까지 잡았습니다. 깊은 산중에 있으면서 목석

(木石)과 같이 살고 사슴이나 멧돼지와 같이 놀았지마는 한 마디 착한 말을 듣거나 한 가지 착한 행동을 보게 되면 양자강이나 황하의 물을 터놓은 듯 막힘이 없이 통달하였습니다.”

요순에 대해서 배운 중국 고전의 표현을 모두 동원하여 그들의 훌륭한 모습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자(程子)는 ‘요와 순은 서로 우열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과연 그렇습니다. 문왕 역시 생지(生知)의 성인이신데 『시경』에 이르기를 ‘슬기도 없고 지혜도 없는 속에 천리(天理)에 순응한다.’라고 하였으며, 또 ‘상천(上天)의 일은 소리로 없고 냄새도 없다. 문왕을 본받으면 온 세상이 믿고 따르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요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대승은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정자(程子), 즉 북송의 학자인 정이(程頤, 1033-1107)가 한 말, 즉 ‘요와 순은 서로 우열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말하자면 ‘중국의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들 사이에는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라는 뜻이다. 이어서 대뜸 선조가 물어보지도 않은 문왕, 즉 무왕의 아버지를 소개한다.

그리고 문왕의 뒤를 이어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문왕의 뒤에는 공자가 주(周)나라 말기에 태어나 모든 임금의 본보기가 되었는데 그 제자의 말에 ‘내가 선생님을 본 바에 의하면 요임금이나 순임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대개 요순시대에는 백성이 잘 다스려져 화평을 누렸는데 그 은혜가 한 시대에만 있었으나, 공자는 만세토록 법을 드리워 그 공이 요·순보다 더하였으니 이른바 성(聖)이라는 지위로 말하면 다름이 없겠지만 공으로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국 기대승은 공자를 끌어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선조의 질문에 답을 하였다. 공자는 요임금, 순임금 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더 나은 이유는 만세토록 유교의 가르침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대승이 선조의 질문에 답한 것은 다소 동문서답으로 흐른 감이 없지 않으나 16살 먹은 어린 임금에게 공자의 가르침을 본받아 ‘요임금, 순임금과 같이 되시오’라는 것이었다. 천하가 곤궁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는 당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를 하시오라는 가르침이었다.

## 선조의 중국 유교사 공부

임태홍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교와 마찬가지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성리학은 하나의 정치 이념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까?

선조가 즉위한 해, 즉 1567년에 이루어진 경연의 기록은 그러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당시 16세였던 선조는 『대학』을 공부하면서 기대승에게 다음과 같은 중국 유교사 강의를 들었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주나라의 문왕, 무왕, 주공 그리고 춘추시대의 공자는 도(道)의 정통입니다. 요임금, 순임금 시대에는 고요(皐陶)·직(稷)·설(契)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탕임금 시대에는 이윤(伊尹) 같은 사람이, 그리고 주나라의 기초를 세운 문왕에게는 태공망(太公望)과 산의생(散宜生)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교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중국 유교의 역사는 이들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들의 존재를 전제로 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하나라 이전의 임금들이다. 우임금은 하나라를 세운 왕이고, 탕임금은 은나라를 세운 왕, 그리고 문왕은 주나라의 기초를 세운 왕, 무왕은 그의 아들로 주나라를 세운 왕이며, 주공 단(周公 旦)은 문왕의 아들이요 무왕의 동생인데, 무왕 사후에 그의 아들 성왕을 도와 주나라의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한 정치가이다. 그는 또 주나라 창업의 공신이기도 하고, 노나라의 시조이기 때문에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가 특히 흠모하였다.

기대승은 이러한 소개를 한 뒤에, 유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갔다.

“공자에게는 3천 제자가 있었습니다. 3천 제자들 중에서 안자(顔子)와 증자(曾子)가 그 종지(宗旨)를 얻었으며, 그 뒤에 자사(子思)가 증자의 전승을 받았고, 맹자(孟子)는 자사의 문인에게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중국 근대시기에 활약한 사상가 양계초(梁啓超, 1873-1929)는 『논어』와 『맹자』가 한나라 때만 하더라도 2급, 3급의 책으로 치부되었으며, 『맹자』의 경우는 그 이름조차도 희미하여 제자백가 중의 하나 정도로 밖에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당시 중요한 유교 경전은 오히려 다섯 경전, 즉 오경인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역경』이 중요한 책으로 꼽히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승은 성리학자로 송나라 때 형성된 신유학, 즉 성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중국 유교를 말하면서 공자 → 증자 → 자사 → 맹자로 이어지는 도통을 중시하여, 젊은 왕에게 그러한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성리학적인 이념은 조선의 통치자에게 이렇게 전파되었다.



이어서 기대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맹자가 죽은 뒤에는 공자의 도(道)가 끊어져서 천여 년을 내려오다가 송(宋)나라 때 이르러서 비로소 끊어진 도통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염계 선생(濂溪先生)인 주돈이(周惇頤)가 있었는데, 학문이 고명하며 저술로는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통서(通書)』가 있습니다. 또 두 정씨가 나왔는데 형인 정호(程顥)는 호를 명도선생(明道先生)이라 하였으며 저술로는 『어록(語錄)』이 있고, 아우 정이(程頤)는 호를 이천 선생(伊川先生)이라 하였으며 저술로는 『역전(易傳)』이 있습니다. 이들은 후학들에게 학문을 강론하여 유교를 공부하는 사문에 공로가 있었는데, 그들 제자로는 귀산(龜山) 양시(楊時)와 예장(豫章) 나종언(羅從彥)이 있습니다. 연평(延平) 이동(李侗)은 나종언에게서 배웠고, 주자는 이동의 제자로서 경서의 주석을 찬정(撰定)했으니 결국 두 정씨를 비롯한 여러 유학자들의 학문을 집대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송의 신유학자들과 주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선조가 신하들과 유교 공부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조를 가르치는 당시의 유학자들 역시 기대승이 소개한 중국의 사상가들의 철학적 사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선조는 기대승의 설명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했다.

“요·순·탕·무는 모두 훌륭한 신하를 얻어 함께 지극히 훌륭한 통치 성과를 이룩했으나 삼대(三代) 이후에는 비록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어진이가 있더라도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도를 스스로 지키면서 은거하였다. 이는 그들이 때를 얻지 못하여 그런 것인가, 당시의 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비록 태평성대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은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기대승이 복잡한 중국 유학사를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임금인 선조는 자신 앞에 놓인 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삼대(三代)란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하·은·주 시대를 말한다. 이 이후에 역사는 타락과 혼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상고(尙古)주의적인 역사관이다. 옛 시대는 훌륭하고 그 이후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대의 시대에는 훌륭한 신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왜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신하들이 나오지 않고, 초야에 은거를 해버리게 되었는가? 그 때문에 세상은 더 혼탁하게 된 것은 아닌가? 지금 조선에 훌륭한 학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불러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요임금, 순임금과 같은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을까? 선조 임금은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대승은 중국에 있었던 다양한 고사며 사례를 설명하며 지식인들이 자신의 임금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음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고요(皐陶), 기(夔), 후직(后稷), 설(契), 이윤의 사례를 소개하고, 한 무제(漢武帝)와 같은 자는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 이후에 육경(六經)을 드러내

었으니 함께 일해 볼 만한 임금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큰 공로를 좋아하여 내심에는 욕망이 많고 외면으로는 인의(仁義)를 과시했기 때문에 동중서(董仲舒) 같은 어진 사람을 얻고서도 등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나, 송나라 때 정명도(程明道)나 정이천(程伊川)이 벼슬에 나가지 못한 일, 그리고 주자와 장횡거가 자신들의 포부를 펼치지 못한 사례를 아주 길게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후세에 간혹 조용히 물러나서 세상에 나오지 않으려는 자도 있고, 위에서는 알아주나 동료들의 질투로 등용되지 못하는 자도 있으며, 임금과 뜻이 맞지 않아 물러나는 자도 있지만, 진실로 성심을 다하여 어진 사람을 구한다면 후세에도 어찌 그런 자가 없겠습니까. 또 유학자로서 오직 학문에만 힘을 쏟고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지조만을 고상하게 가지려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대체로 어진이가 자중(自重)하지 못한다면 비록 등용한다고 한들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기대승의 설명은 단순 명쾌한 것은 아니었다. 젊은 임금의 질문을 간략히 파악해서 정곡을 찌르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문장은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게 만드는 말이었다. 그는 중국의 사정은 장황하게 잘 알고 있었으나, 젊은 임금을 옆에서 모시면서 우리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어가고 그를 요순에 버금가는 성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뒤를 이은 차세대 젊은 유학자 율곡 이이에게 선조가 깊이 빠져든 이유는 아니었을까?

## 젊은 군주 선조의 고민

임태홍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최고 통치자가 바뀐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 자신이 투표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사람들은 5년간에 변하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커다란 희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로, 더구나 그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선출되면 그를 찍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5년간의 미래를 걱정한다. 단지 5년뿐인데도 그렇다. 그렇다면 조선의 임금들처럼 죽을 때까지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게 될 심리적 부담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조선의 임금들은 종신직이었다. 죽을 때까지 최고 통치자로 산다. 선조는 1567년에 16세의 나이로 조선의 왕이 되었다. 그의 미래에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경복궁이 불타고 임금이 종묘사직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준비하고 조선왕조실록의 보관 창고가 송두리째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누구도 그런 일을 예견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런 사건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선조 자신도 처음부터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조는 명나라로부터 조선의 국왕이라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서 나라 안의 대학자들을 궁궐로 불렀다. 장시간 동안 『대학』 공부를 하고 있던 그때, 그는 불려온 성리학자 기대승(奇大升, 1527-1572)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정자나 주자가 관직을 떠나 물러간 것은 그 당시 임금이 소인의 이간질로 지성으로 대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임금이 지성으로 했더라면 어찌 참소가 있겠는가?”

어진 사람들을 곁에 두고 훌륭한 정치를 펼쳐보고 싶다는 포부를 이렇게 바꿔 말한 것이다. 선조 자신은 정자나 주자처럼 훌륭한 학자들을 지성으로 대할 자신이 있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하였다. 기대승이 이 앞의 설명에서 명도(明道)나 이천(伊川) 그리고 주자의 관직 생활이 여의치 않았으며, 자신들의 꿈을 정치에서 충분히 펼쳐 보이지 못했음을 설명하자 거기에 대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다.

기대승이 이렇게 대답했다.

“임금님의 가르침이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소인이 군자를 해치는 데는 천만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비록 지성으로 어진 사람을 등용하려 해도 어진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 남송 때의 효종(孝宗)은 유능한 임금이었습니다. 주자는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깨끗이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세 번이나 입궐하여 진언한 것이 모두 환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효종이 비록 어질다고 하더라도 왕에 오르기 전에 총애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인정

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아첨꾼들이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임금의 비록 진심으로 국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물러갔습니다.”

훌륭한 학자를 곁에 두고 일을 맡기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소인이 군자를 해치는 방법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임금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기대승은 41세였다. 그 뒤 3년 뒤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할 것을 선택하였는데, 왜냐하면 기대승은 이미 조정에서 불합리하게 벌어지는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기대승은 이렇게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진이를 알아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서 신임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약 신임하지 않는다면 소인의 참소와 이간질이 어찌 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정의 일로 말하더라도 종종 초년에 조광조(趙光祖, 1482-1520)가 정성을 쏟아 지극한 정치를 도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국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이 성현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여 당시 실시한 일들이 간혹 적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인들의 무리가 끝내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모함하자, 종종도 믿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신을 신임하게 되면 소인은 이간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진이 하나가 참소를 받고 물러간다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발걸음을 멀리 할 것이며 조정에 나오는 자들은 녹만을 탐할 뿐입니다.”

기대승은 또 선조가 이황이며, 이항, 조식 등 원로 대학자를 초빙한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에 이황(李滉), 이항(李恒), 조식(曹植)을 올라오게 하신 일은, 그것이 비록 선왕의 뜻이었다고는 하지만 임금께서 계승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상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황은 1501년생이고, 이항은 1499년생이며, 조식 역시 1501년 모두 70세의 고령입니다. 이처럼 날씨가 몹시 추울 때에는 불러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르시는 명령이 내리셨으니 아마도 물러나 있기가 미안하여 괴로워 할 것입니다. 만약 집에 있으면서 병을 조리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길을 떠났다가 병이라도 얻게 되면 길에서 죽을까 걱정됩니다. 전하께서 만나보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어진 선비를 만나 뵈는 때에는 관대하게 해야지 몰아붙여 촉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날씨가 춥고 병이 있다면 일의 형세를 보아가면서 올라오도록 다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젊은 임금 선조는 이렇게 대학자들을 모시고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귀중한 조언을 듣고 싶어 했다. 기대승은 선조의 관심에 부응하여 이황과 이항 그리고 조식에 대해서 자신이 듣고 본 바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예를 들면 그는 “이황과 이항은 신이 직접 보아서 잘 알고 있으며 조식은 신이 보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일찍이 여러 벗들을 통해 그들의 사람됨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황에 대한 평을 보면, 자질이 매우 고명하고 정자와 주자를 조술(祖述)하여 근래 우리나라에서

는 이러한 인물이 드뭅니다. 그의 성품이 명예나 이익에는 관심이 없으며 젊어서부터 벼슬살이를 싫어하여 고향에 내려가 사느라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젊은 선조가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을 염려하여 기대승은 다음과 같이 충언을 덧붙였다. “부득이 성상(임금)의 학문이 고명해지신 뒤에야 정무(政務)의 득실과 시비, 그리고 여러 신하들의 현명함과 그렇지 못함,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중용』 구경장(九經章)에 이르기를 ‘몸을 수양하면 도가 확립된다.’라고 하여 『중용』의 도는 수신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이천(伊川) 역시 뜻을 세우고, 현명한 인물을 구하고, 임무를 맡길 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천하를 다스리는 요체로 삼았습니다.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한 뒤에야 어진이가 기꺼이 등용되고자 할 것입니다. 어진이를 등용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비록 큰일을 하려고 해도 어찌 진심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뜻을 임금께서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기대승 자신 역시 선조 곁을 떠나 낙향을 선택하였다. 조정에서 그는 자신을 경계하던 영의정 이준경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결국 이준경의 문제점을 들어 기대승은 선조에게 상소까지 하였으나 선조는 이준경을 감싸고 들었다. 이준경은 선조가 왕에 오를 때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옷자락을 붙잡는 선조를 뿌리치고 길을 떠난 기대승은 낙향 길에 조그마한 종기가 몸에 퍼지면서 사망하였다. 선조는 그의 죽음이 안타까워 그가 경연장에서 남긴 말을 모아 문집으로 만들도록 하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대승을 떠나게 한 것은 선조 자신이었다.

## 율곡, 향약 시행의 어려움을 말하다

임태홍

선조 6년, 즉 1573년 9월 21일의 이야기다.

이날 율곡은 왕에게 『서경』을 강의하였다. 『상서(尙書)』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우서(虞書)』, 『하서(夏書)』, 『상서(商書)』, 『주서(周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순시대, 하나라시대, 은나라(상나라)시대, 그리고 주나라 시대의 정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 서적이다. 이날 율곡이 어떤 내용을 강의하였는지는 상세한 기록이 없다.

당시 조정에서는 향약(鄕約)의 실사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향약이란 ‘향촌의 약속’이란 뜻으로 마을의 자치적인 규약을 말한다. 1519년, 중종 14년에 조광조가 향약을 널리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율곡이 지은 『경연일기』의 1573년(선조 6년) 9월 기록을 보면 ‘옥당(玉堂)과 양사(兩司)에서 상소하여 팔도 군읍(八道郡邑)의 사민(士民)으로 하여금 향약을 행하도록 하자고 잇달아 청하니 임금의 허락하였다.’고 하였다. 옥당은 홍문관이며, 양사는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말한다. 이들 부서에서 향약 시행을 거듭 요청하여 선조는 허락을 하였다는 것이다.

1573년 9월 21일 경연장의 일이다.

선조 임금의 목소리가 다소 잠겨 있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율곡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병이 있어 오랫동안 고향에 물러가 있었는데, 오늘 전하의 목소리를 들으니 많이 잠겨있는 듯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여색을 경계하라는 말을 싫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그런 일이 없으면 여색을 멀리하도록 더 힘쓰실 것이요,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율곡은 임금에게 강의를 하는 입장이었으나, 동시에 홍문관 직제학의 신분으로 왕을 대면하는 입장이었다. 홍문관의 관원들은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 외에도 조정의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임금의 잘못을 간언하는 책임이 있었다. 임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잠겨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문제를 임금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언을 한 것이다. 동시에 율곡은 임금이 사람들의 듣기 싫은 간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조선의 임금 자리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였다. 율곡의 지적이 지나친 점도 있었으나 당시 율곡이 속해있던 홍문관은 특히 간언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임금이 사헌부나 사간원의 간언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홍문관까지 합세하여 간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한 홍문관의 관료로서 간언을 한 것이다.

선조도 임금이 된지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냥 꾸중만 듣고 있지는 않았다. 당

시 22살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던 선조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대가 전에 올린 상소(上疏)에도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소리는 원래 같지 않은 것인즉 내 말소리가 원래 그러한데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쓸데없이 목소리를 핑계로 여색 운운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울곡도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전하가 막 임금이 되었을 때도 제가 가까이서 뵈었는데, 그 때에는 목소리가 낭랑하여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의심한 것입니다.”

옆에서 선조와 울곡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던 사관도 두 사람의 대화가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이렇게 기록했다.

‘이이(울곡)가 임금에게 일을 아뢰는 때 어투가 너무 직설적이었는데, 이 때 전하가 자못 언짢아했다.’

이어서 선조는 화제를 돌려 울곡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조정에 머물지 않고 오래도록 물러가 있었는가?”

울곡이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화제를 슬쩍 돌린 것이다.

울곡은 그 전 해 1572년(37세)에 병으로 사직을 하고 고향인 파주로 내려가 친구인 성훈과 어울려 성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다음해 1573년 7월에 홍문관 직제학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는 바로 사퇴를 청하였다. 하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 차례 상소를 하여 결국 허락을 받고 다시 파주로 돌아갔었다. 그런데 9월에 조정에서 다시 울곡을 직제학으로 임명하였다. 울곡은 또 사퇴를 청하였으나 이때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날 울곡이 임금에게 『서경』을 강의하게 된 것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였던 것이다.

울곡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몸이 쇠약하고 병들어서 힘써 전하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데다 능력도 짧아서 조정에 있어도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구차하게 녹(祿)을 먹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가 있었으나 군신(君臣)의 의리야 감히 잊었겠습니까?”

선조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이곳에 머물며 나를 보좌해야 하니 다시는 떠난다고 하지 말라.”

행여 젊은 임금이 여색에 너무 빠져 목소리가 상하게 되었는지 의심을 한 신하이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선조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울곡은 이제 시급한 정무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향약(鄉約)을 오늘날 거행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방면의 정치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고달픈데, 교화(教化)하는 일부터 시행한다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거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으니, 이에

전하의 마음이 장차 큰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겠습니다. 전하께서 더욱 힘써 몸소 선포하신다면 무엇을 행한들 어렵겠습니까?”

울곡은 백성들의 생활이 고달픈데 그들을 교화하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하는 뜻이었다. 이미 임금이 향약 시행을 결정한 이상 적극적인 반대는 못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그것에 적극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같은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김우옹(金宇顛)은 울곡의 의견과는 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향약을 어찌 행할 수 없겠습니까? 무릇 일에는 근본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임금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여 모범이 되고서야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략) 만약 향약을 오늘날에 행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크게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지난번 경연관(經筵官)이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향약은 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교화는 반드시 위에서 하는 것인데, 주자는 아랫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행하기 어렵게 여겼으나 이제 전하께서는 이를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니, 무엇 때문에 행하기 어렵겠습니까?”

김우옹은 임금의 의지만 있으면 향약의 시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울곡이 이미 청주목사(淸州牧使)로 임명되었을 때, 그곳에서 향약을 시행해본 경험이 있어 그 일이 임금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율곡이 향약 시행을 반대한 이유

임태홍

1573년(선조 6년) 9월 21일, 율곡은 경연의 자리에서 “향약(鄕約)을 오늘날 시행하 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향약 시행에 대해서 완곡하게 반대의견 을 제시했다.

그 다음해(1574년, 선조 7년) 1월 1일자로 기록된 「우부승지 이이의 시폐와 재변 에 관한 만언소」에서도 율곡은 “향약(鄕約)을 널리 실시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긴 하나, 어리석은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풍속을 가지고 향약을 실시한다면 좋은 성 과가 없을까 염려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향약이란 지방 향촌에서 백성들끼리 정한 약속으로 향촌의 자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향약을 중앙의 조정에서 실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취지 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자치 규약이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변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율곡은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당시 조정의 대다수 관리들의 의견은 향약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1573년 9월에 율곡과 같이 경연에 참가하였던 김우옹(金宇顛, 1540-1603)은, 만약 향약을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면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될 것이라 고까지 주장하였다. 김우옹은 당시 34세로 38세였던 율곡보다 4살 젊은 관료였다. 김우옹 역시 율곡처럼 선조의 두터운 심임을 받았는데, 서인 그룹에 가까웠던 율곡 과는 다소 대립적인 동인 그룹에 속한 인물이었다. 김우옹은 1573년에 이황에게 시 호를 내리도록 건의하고, 또 조광조를 모신 도봉서원에 사액을 내리도록 건의하기 도 하였으며, 1579년에는 율곡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율곡을 두둔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도 적극적으로 향약을 지지했는데 율곡은 왜 향약 실시 반대 입장을 취했을까?

선조가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향약 시행에 대해서 관료들의 제안이 잇달았다. 예를 들면 황억(黃億)이 상소를 올려 여씨 향약(呂氏鄕約)을 시행하자고 하였다. 이 에 대해 예조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여씨 향약의 법을 시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게 되어 교화를 베풀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데 반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 금은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기근과 추위를 면하기에 급급하여 예의를 돌아볼 겨를 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모이게 하여 향약을 강론하느라 분주하게 되면 소요가 일어날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능한 인물이 많은 곳을 택하여 먼저 그 가 능성을 시험해 보도록 하되 급하게 몰아치지 말고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선조 4년, 1571년 2월 28일 선조실록 기사)

흥년으로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칠 여유가 없으며 또 향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을 모을 때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선조도 이러한 예조의 지적에 따라 향약의 실시에 대해서 선뜻 반기지 않았다.

그러나 예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흥문관(弘文館) 관리들은 1572년(선조 5년) 10월 25일에 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약 실시를 재차 요청하였다.

“임금이 재앙을 당하면 마땅히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수양해야 하며, 의견을 구하고 간언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요즈음 헌부(憲府)의 상소에 대하여 성상께서 짜증과 불평스러운 말로 답하셨으니,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기를 청합니다. 또 간원이 향약을 시행하자고 청하였을 때 성상께서 해괴한 풍속이라 하여 고인의 법도를 회복하는 것을 괴이한 일로 여겼으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흥문관의 이러한 건의에 뒤이어, 향약을 시행하자는 관리들의 간언이 잇달아 올라오자 선조는 결국 마지못해서 향약의 실시를 허가하였다.

그러한 임금의 결정에도 울곡은 향약 실시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는데, 그는 아직 그것을 실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574년에 임금께 올린 만원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상(임금)께서 처음 자리에 오르셨을 때는 백성들 사이에 희망에 차서 그런 대로 선을 지향하려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그때에 성덕(聖德)이 날로 풍성해지고 정치가 날로 향상되었다면 오늘날의 인심이 어찌 이 지경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직 초년(初年)에 대신들의 보필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를 천박한 법규로 그르치게 하고 민생을 비천한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신들이 간혹 공명(公明)한 마음으로 공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깨끗하고 올바른 의견은 미약하고 저속한 견해가 고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한 말을 듣거나 선한 사람을 보면 남의 체면 때문에 흠모하는 자도 있고, 겉으로는 좋아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 꺼리는 자도 있고, 혹은 버젓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자도 있었는데, 진심으로 선한 말과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자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울곡의 생각으로는 선조 초년에 임금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졌다는 점, 그리고 진심으로 선한 말과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자가 드물다는 점을 든 것이다. 선한 말과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자들이 드물다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보다는 백성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관리들 사이에서의 사정을 말한 것이다. 그는 대신들 사이에 저속한 견해가 고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한 말을 듣거나 선한 사람을 보면 남의 이목 때문에 겉으로는 좋아하는 체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꺼린다는 것이다. 혹은 버젓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말과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자는 아주 드물었다고 하였는데, 요컨대 관리들 자신들이 향약과 같은 도덕적인 규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73년 9월 21일에 향약을 반대하면서 울곡이 지적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

다. 그는 ‘여러 분야의 정치가 원활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고달프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백성들이 궁핍해져 있고, 관리들이 그러한 제도를 실시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574년에 올린 만언소에서 그는 “지금의 습성을 가지고 향약을 실시한다면 좋은 풍속을 이룩하는 성과가 없을까 염려됩니다.”라고 한 것이다. 관리들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약을 실시하게 된다면 향약의 취지가 변질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 현실을 중시한 개혁가 율곡

임태홍

향약(鄉約)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다.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鄉約)>이 그 시초다. 여씨 향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께 약속을 한 자는 덕업(德業)을 서로 권하고, 과실은 서로 바로 잡으며, 예속으로 서로 사귀고, 환난을 당할 때는 서로 도우며, 착한 일은 장부에 기록하고, 잘못이나 혹은 약속을 위반하는 일은 역시 장부에 기록한다. 잘못을 세 번 저지르면 벌을 주고 그래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를 끊는다.”

이러한 내용은 남전여씨(藍田呂氏)의 형제들이 같은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자치 규약이었다. 북송시대에 활동하였던 여씨 형제들은 모두 여섯 형제 가운데 다섯 형제가 과거에 합격한 명문집안의 자제들이었다. 그들은 관중지방에서 북송의 대유학자인 장재(張載)와 정호(程顥), 정이(程頤)의 형제들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들은 모두 북송의 고급관료로 외교, 국방, 경제 분야에 관여하고 예학자로서 사회의 교화(敎化)에 앞장섰다. 여씨 향약은 그러한 사회 교화 활동의 결과였다. 덕업을 서로 권장하고 예로서 서로 사귀며, 착한 일을 장부에 기록한다는 항목에서 그들이 지향한 유교적인 교화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주자는 이러한 여씨향약을 보완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鄉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고려시대 말에 주자학과 함께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이다.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鄉約)>은 여씨 향약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부 주자가 추가한 부분도 사실은 여씨 향약을 만들었던 여씨 형제들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었다.

이러한 향약은 향촌의 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향촌에 거주하는 사대부 혹은 사인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들 향약은 국가 권력과는 상관없이 향촌 내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한 자치적인 규율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율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향약에서 정한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행위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잘못을 세 번 저지르면 벌을 주고 그래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를 끊는다.”라는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대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관계를 끊은 수단 밖에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향약이 실지로 널리 시행된 것은 조선시대 중엽 이후부터이다. 중종 때 사림파인 조광조, 김식 등이 건의하여 전국 각지에 향약 실시가 반포되었다. 이후 퇴계 이황(李滉)과 율곡 이이 등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향약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퇴계는 여씨 향약 중에서 특히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시정한다는 ‘과실상규

(過失相規)’의 항목을 중심으로 향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예안향약(禮安鄉約)>이다. 예안 향약은 가정생활의 기본 윤리에서부터 향촌 마을 생활의 기본 윤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규율을 정하였다.

퇴계는 향약의 제정에 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옛날 향대부의 소임은 덕행과 도예(道藝)로서 고을 사람들을 이끌고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었으며, 선비된 사람도 또한 반드시 집에서 몸을 바로잡고, 향중에서 이름이 들어난 뒤에야 나라에 나아가 등용되었다. 효제충신이라는 것은 인도(人道)의大本(大本)이요, 집과 향당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향약 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람을 잘 얻으면 한 마을이 조용하고, 사람을 못 만나면 한 마을이 해체되거늘, 하물며 향속(鄉俗) 중에는 임금님의 덕화(德化)가 못 미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서로 공박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갈등하며,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의 도리가 허물어져 행해지지 아니하니, 예의를 버리고 염치에 등을 돌림이 날로 심해져 오랑캐나 금수와 같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임금님의 정사(政事) 중에 큰 걱정꺼리이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을 책임이 바로 향소(鄉所)에 있으니 실로 그 책임이 또한 무겁도다.”

여기에서 퇴계가 말하는 ‘향소’란 유향소(留鄉所)를 말한다. 유향소는 조선시대 때 지방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이다. 지방의 유력자나 벼슬에서 은퇴한 자 중에서 뽑아 지방의 풍속을 지도하고 향리의 부정을 막도록 하였다. 퇴계의 향약은 이렇듯 지방 유향소의 역할이 크고 지방의 행정조직과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퇴계는 이어서 “혹자는 먼저 가르칠 종목을 들지 않고 다만 벌칙만 든 것을 의심할 것이다. 이것도 진정 일리가 있다. 그러나 효제충신이란 마음속에 타고난 떳떳한 성품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학교를 세워 가르치는 것이 어느 하나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바가 없으니, 하필 우리들이 따로 조목조목 열거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면서 벌칙을 내릴 대상과 벌칙을 열거하여 향약을 마무리했다.

울곡은 36세 되던 1571년 6월에 청주목사(淸州牧使)로 임명되었다. 그 때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鄉約)>을 토대로 <서원향약(西原鄉約)>을 만들었다. 그 다음해에 그는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이 파주로 귀향함에 따라 향약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선조 6년, 1573년 9월 21일)에 조정에서 향약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는 향약의 실시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는 왜 반대하였을까?

“(지금 우리 사회에) 진실은 적고 허위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꼭 죄가 없어서 구제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고을의 수령으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은 자라고 해서 꼭 공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울곡이 판단한 당시 선조시대의 사회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래서

그는 “진실은 적고 허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당시 사회에는 술자리를 베풀어 선비들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가 성행하고,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혼탁한 세류에 물든 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향약을 시행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더 열거하였다.

“아래 백성들의 경우는 굶주림과 헐벗음이 절박하여 본심을 모두 잃어 부자 형제 사이라도 서로 길가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고 있으니, 그 밖의 일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형벌과 정치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온 방식대로 따르고 우리의 관습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 윗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교화를 펴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율곡은 사회가 혼탁하여져서 선조 임금이 설사 공자와 같은 성인이라 할지도 향약은 시행될 수 없다 판단한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향약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의 조건이 그리 할 수 없으니 시행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생각은 현실을 중시한 개혁가 율곡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얀 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하다

임태홍

율곡이 38세 되던 1573년, 선조 6년 12월 28일(음력)에 하얀 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한 일이 발생하였다. 율곡이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임명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율곡이 임명된 우부승지란 승정원(承政院)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다. 승정원은 왕명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조, 그리고 동부승지는 공조의 일을 분담하여 담당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연에 참석할 수 있는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겸하였으며, 해당 업무에 관해 국왕의 자문 역할도 하였다.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문서는 모두 이 승정원을 거치도록 되어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였다. 오늘날의 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조실록에는 그날의 기록에 이렇게 적혀있다.

“하얀 무지개(白虹)가 해를 관통했다. 영의정이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뵈니 선조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로 이렇게 일렀다. ‘요즘 어진 선비가 조정에 있어서 훌륭한 말을 앞 다투어 아뢰는 것은 전에 없이 기쁜 일인데,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이변이 발생하였구나. 이것으로 보면, 위에서 옛 도를 회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곧은 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영의정은 당시 관료 중에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책임자로 임금을 보좌하고 모든 관리들을 거느렸으니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영의정이 급히 임금을 뵈고 임금의 교지(敎旨)가 담긴 비망기를 받아온 것이다.

비망기에는 하얀 무지개가 해를 관통한 일을 이번으로 표현하였다.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별로 특이한 일도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흉조라 하여 전란이나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날 징조로 보았다. 하얀 무지개에 대해서 『진서(晉書)』(친문지)에는 온갖 재앙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정이 급히 임금을 찾아 교지를 받게 된 것이다.

임금의 교지에는 유감의 표명만 나와 있지만, 그 다음날 조정은 흉조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임금에게 조정의 행사를 취소하도록 권한 것이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12월 29일자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이 태양의 이변을 이유로 정월 초하루의 망궐례(望闕禮)와 9일의 문소전(文昭殿) 대제(大祭)를 정지하기를 요청하였는데, 임금이 그 의견에 따랐다.”

정월 초하루의 망궐례는 문무백관이 임금 앞에 모여 절을 하며 수복강녕을 기원

하는 의식으로 요즘의 신년 하례식과 같은 행사이다. 문소전 대제는 종묘와는 별도로 궁궐 내에 지은 원묘(原廟)인 문소전에서 지내는 큰 제사를 말한다. 이들 행사는 어느 것이나 일 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행사였는데 그런 행사를 취소한 것이다. 그만큼 태양을 관통한 하얀 무지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하얀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고 지나간 일은 그 전 해인 1573년에도 있었다. 당시 1월 19일, 선조실록의 기사에 이런 기록이 있다.

“하얀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었다. 임금이 다음과 같이 교시를 전했다. ‘근래 재난의 징조를 나타내는 이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또 이러하므로 아주 유감스럽다. 궁궐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겠다.’”

임금이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덕을 닦는다는 뜻으로, 정전(正殿)에 나아가 조의(朝儀)를 행하는 것을 삼가고, 반찬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율곡은 『경연일기』 1574년 1월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으니 조야에 직언을 구하는 교서를 내렸다. 또 성운(成運)과 이항(李恒)을 불러 역마(驛馬)를 타고 올라오라 하였다. 이는 장차 재앙을 방지할 계획을 묻기 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성운과 이항은 병이 있다고 사양하고 오지 아니하였다.”

1573년에도 무지개가 뜬 다음날인 30일에 임금은 정전(正殿)에서 피신하고, 반찬을 줄이고 음악 듣기를 중지하였다. 율곡의 『경연일기』(1574년 정월조)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임금이) 재변(災變, 재난이 일어날 이변)으로 인하여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을 줄였으며, 음악을 듣지 않았다.”

『경연일기』에는 또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이 병으로 사퇴하자, 지체 없이 체직(遞職)을 명하니 못 사람들이 의혹하였다.”고 하였다. 임금이 우의정 사퇴를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교체할 명한 것은 역시 무지개의 이변 때문이었다.

우의정 노수신은 광주(光州) 사람으로 동인에 속한 인물인데 나중에 영의정(재임 기간 1585-1588)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선조실록에는 그의 사퇴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만들어진 선조수정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이 병으로 사퇴를 청하자 임금이 즉시 허락하였다. 이는 임금이 무지개의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대신이 적격자가 아니라서 그럴 것이라고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이(李珣)가 좌의정 박순(朴淳)에게 말하기를, “재변이 이러하므로 임금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의혹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중략) 마침내 이탁(李鐸)과 박순이 노수신을 체직하지 말 것을 계청하니 성상이 따랐다.”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는 이변이 일어나니 임금은 자신이 신하들의 임명을 잘못한 것인지 의심한 것이다. 그래서 우의정의 교체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임금의 행동에



대해서 관료들은 몇 차례의 간언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결국 우의정 노수신은 교체되지 않고 사표가 반려되었다.

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하는 사건은 1574년 1월 5일에 한번 더 일어났다. 선조실록의 기록에 “눈이 오고 흰 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했다.”고 하였다. 율곡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이렇듯 자연의 이상 현상이 정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해석되는 시대이기도 하였다.

군주의 덕이 부족하고 사회 풍속이 타락해지면 하늘에서 경고를 내렸다. 자연의 이상 현상이나 자연 재해가 바로 그 경고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조짐이 있으면 임금의 자신의 부덕함을 반성하고 백성들의 교화에 힘썼다. 이러한 사상은 유교의 한 부분이기도 하므로 유교의 역사관 혹은 정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 외국의 침략을 예견한 조정

임태홍

1574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8년 전 정월은 조정 안팎으로 뒤숭숭했다. 그 전해 12월에 하얀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고 지나가는 이변이 있었는데, 새해 정월 5일에도 다시 그러한 불길한 흉조가 하늘에 나타났다. 그 다음날 6일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율곡이 지은 『경연일기』에는 “경성(京城)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였다.

서울에 지진이 있었으니 임금이 사는 궁궐에도 그 흔들림이 전해졌을 것이다. 당시에는 지진도 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하는 흉조만큼이나 나쁜 조짐이었다. 연산군 시대에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으로 있었던 이세영(李世英) 등이 올린 상소를 보면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다.(연산군 4년 7월 8일 기록)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거나, 임금이 포박하여 함부로 죽이면 지진이 있고, 대궐 안에서 정치를 어지럽히는 여자가 있으면 지진이 있고, 외척(外戚)이 멋대로 세도를 휘두르고, 내시가 권세를 부리면 지진이 있다. 그리고 형(刑)과 벌이 중용의 도를 잃으면 지진이 있고, 감옥에 원통한 죄수가 있으면 지진이 있고, 임금이 간하는 말을 듣지 않거나, 안으로 여색(女色)에 빠지면 지진이 있고, 오랑캐가 침범하여 사방에 병란(兵亂)의 조짐이 있으면 지진이 있다.

또 성종 23년(1493) 당시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자, 당시 영의정 등 고위 관리들은 “무능하고 부덕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재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변고가 생겼다”면서 사직서를 내기도 하였다. 임금은 하늘이요 신하는 땅인데, 땅이 진동한 것은 신하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나라 유학자 동중서는 이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후대에 이르러 군주가 음란하고 태만하여 국가가 쇠약해져서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제후들은 등을 돌리고 양민을 학대하여 토지를 강탈하는 등 덕에 의한 교화를 폐하고 형벌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형벌이 온당치 못하면 사악한 기운이 생긴다. 사악한 기운이 밑에서 쌓이면 원한이 위로 축적하게 된다. 위아래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곧 음양의 기운에 혼란이 일어나 이변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이(災異)가 발생하는 원인이다.”(『한서』「동중서전」)

기상이변이 생기는 것은 인간 사회의 부조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춘추변로』에서 임금 왕(王)자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였다. “옆으로 그은 3획은 천(天), 지(地), 인(人)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위에서

아래로 이은 것은 그 의미를 통하게 한 것이다. 천지(天地)와 인간의 가운데를 취하여 그것을 이어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것은 왕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도(人道)만이 천(天)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천지와 군주는 동일한 존재다”

유학자들의 생각에 기상이변이 일어날 때 군주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군주는 행동과 마음가짐은 단정하게 하고 백성들과 잘 소통함으로써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야한다.



경복궁의 사정전

선조 임금의 거둬들인 흉조를 당하여 음악 듣는 것을 중지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다. 그리고 정전(正殿)의 사용을 피하였다. 정전은 궁궐에서 큰 행사가 열릴 때 사용하는 곳이다. 신하들과 조회할 때도 가끔 정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외국의 사신이 오거나 새로운 임금이 즉위할 때 사용한다.

선조는 경연의 자리를 옮겨 사정전(思政殿)의 처마 밑에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월에, 더구나 아침에 하는 조강(朝講)을 그곳에 하기는 날씨가 너무 추웠다. 그래서 신하들의 권유로 비현각(丕顯閣)에서 소규모로 강연을 하기로 했다. 비현각은 동궁에 있는 것으로 왕세자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조그만 전각이다.

이 비현각에 임금을 모시고 들어간 관료들은 대신, 대간, 강관뿐이었다.

율곡의 『경연일기』에는 당일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이때 입시관(경연에 참석하는 관리)들이 모두 사정전 문 밖에 나아갔으나, 지사(知事)·특진관(特進官)은 비현각이 협소하여 들어갈 수 없었다. (중략) 임금이 비현각에서 이탁에게 말하기를, “근래에 위로는 천변이 심상치 않고, 아래로는 민생이 곤궁하다. 나의 덕을 돌아보니 진취하는 바는 적고 퇴보는 많아 국사를 그르치는 일이 많았다. 지금은 다행히 만해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손에게는 반드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영의정에게 묻노니 장차 어떻게 하면 하늘의 노

여움을 풀고 민생을 소생시키며 나라를 편히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8년 전, 선조 임금의 말은 마치 예언자의 말과도 같았다. 이탁(李鐸, 1508-1576)은 당시 67세로 영의정에 오른지 2년쯤 되었다. 1531년(중종 26)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3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는데, 정언, 지평, 이조정랑, 대간 등의 직책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덕이 많고 청렴한 학자로 이름이 높았다.



동궁의 비현각

선조가 자신의 덕을 돌아보니 퇴보가 많고, 국사를 그르치는 일이 많았다고 한 것은 100% 진심으로 말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흉조를 맞이하여 임금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또 “지금은 다행히 만해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손에게는 반드시 근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재앙은 바로 18년 뒤, 자신의 임기 중에 일어났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심기일전을 하였다면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사람들에게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당시 바야흐로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1338년에 출범하였던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가 멸망하였다. 무로마치 막부의 최고 수장인 15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 수도인 교토에서 1573년에 축출되었다.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 의해서 차츰차츰 하나의 통일된 제국으로 통합되고 있었다. 그의 부하인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그 밑에서 더 큰 야심을 키우고 있었다.

선조의 질문에 영의정 이탁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신의 생각으로는 주상(임금)께서 마땅히 유념하실 것은 경천(敬天) · 근민(勤民) 두 가지 일입니다. 주상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하늘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이 생기는 것은 실로 신과 같이 못난 자들이 중요한 자리를 더럽히는 까닭이오니, 보잘 것 없는 저를 파면하시고 현명한 재상을 다시 임명하시면, 치도(治道)를 이룰 수 있을 것이요, 천심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 정사는 그리 어지럽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일도 드뭅니다. 또 의견을 구하는 교서를 내리어 겸손히 자책하심은 지성에서 나온 것이니, 성탕(成湯)의 여섯 가지 자책도 이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근민(勤民)’이란 백성들 다스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런히 정치에 힘쓰라는 것이다. 이탁은 자신을 파면할 것을 제안하고, 또 교서를 내려 직언을 널리 구하도록 하였다. 이탁이 말한 성탕(成湯)의 여섯 가지 자책이란 은(殷)나라의 첫 임금 성탕 때의 일을 말한 것으로 당시 7년간이나 가물어 스스로를 자책한 일을 말한다. 성탕 임금은 스스로 뽕나무 밭에 들어가 비가 내릴 것을 기원하면서 “정치가 알맞지 않은가? 백성이 일을 잃었는가? 궁실이 사치한가? 궁녀의 청탁이 성행하는가? 뇌물이 행해지는가? 참소하는 자가 설치는가?”하고 자책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자책 이후에 곧바로 사방 수 천리에 큰비가 내렸다.(『십팔사략(十八史略)』) 이탁은 이러한 자책보다 임금이 겸손히 자책하고 널리 지성으로 직언을 구하는 일이 더 절실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하늘의 노여움이 풀리고 백성들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옛 사람의 말에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렵다’ 했고, 또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실질로써 해야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능히 실질로써 하늘에 응대하면 하늘의 꾸지람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흰 무지개의 변은 고금으로 병난(兵難)의 상징이라 하니, 변방이 수비를 미리 조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탁의 말은 일본에서 준비되고 있는 조선 침략의 기미를 분명하게 파악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조선의 관리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염탐하고 조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늘의 불길한 이변을 통해서 외국의 침략을 사전에 예견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이 무엇을 해야 할지 멀리 물어볼 것도 없이 영의정인 이탁의 입에서 다 나왔다. 무지개의 변은 외국의 침략을 뜻하니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까지 해놓고 일본 침략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임금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이 있을까?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두 차례나 침략을 당했다. 침략해 올 것을 예견하면서도 침략을 당한 것은 20세기 초의 식민지 침략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세 번째 침략은 없을 것인가? 요즘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두 번이나 침략을 당한 경험을 잊지 말고,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 울곡, 만언소를 올리다

임태홍

1574년 정월, 선조 임금은 기상이변이 계속되자 친서를 내려 널리 의견을 구했다. 당시 우부승지(同副承旨)로 임명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울곡도 글을 올렸다. 이 글이 『만언봉사(萬言封事)』, 즉 ‘만 글자에 이르는 상소문’이다. 만언소(萬言疏)라고도 불리는 이 글은 기상이변의 흉조를 당하여 앞으로 다가 올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일을 적어 올린 것이다.

당시의 분위기를 전한 울곡의 『경연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이이가 어떤 이에게 말하기를, “이변이 너무 심하여 주상(임금)이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이변을 풀 계책은 알지 못하고 한갓 의혹만을 조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의혹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내가 상소를 하여 작금의 폐단을 극진히 말씀드리고 그러한 폐단을 극복할 계책을 올리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박순(朴淳)이 듣고 만류하며 말하기를, “성상의 위엄을 범하여 더욱 불안하게 될까 우려되오.” 하였다.

임금이 의혹을 조장한다는 것은 당시 선조가 흉조를 신하들의 탓으로 여기는 기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울곡의 생각은 당시의 폐단은 더 큰 틀에서 파악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순(朴淳, 1523-1589)은 훈구파와 신진 사림(士林)이 교체되는 시기에 사림운동에 힘쓴 관료였다. 당시 훈구파의 대부였던 윤원형을 축출시키는데 큰 공을 세워 사림파의 시대를 연 선비이기도 하였다. 그는 성균관 대사성, 예조판서, 한성부 판윤 등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고 청백리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장원급제자가 영의정에 오르는 경우가 몹시 드물었는데, 그런 징크스를 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문하생이었는데, 울곡이나 성혼(成渾)과도 가깝게 지냈다.

울곡이 상소를 올리겠다는 것을 만류한 박순에 대해서 울곡은 “대신이란 인망이 달려있는 것인데, 자기도 말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말을 못하게 합니까?”(『경연일기』)라고 항변하였다.

또 당시 열린 경연의 자리에서 부제학 유희춘(柳希春)이 임금에게 위장에 해로운 음식물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었다.

“신(유희춘)이 외람하게도 경연에서 모시며 임금님의 증세를 살펴보고는 염려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약물과 음식물을 쓰는 일이야 어의(御醫)가 이미 의술대로 다하

여 더 이상 남아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료로 원기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그래도 말씀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신이 의가(醫家)에는 조금도 접해보지 못했으니 감히 그 내용이야 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어려서부터 약했기에 병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양생하는 글을 조금 보았습니다. 이번에 구구하게 변변치 못한 정성으로 비장과 위장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다섯 가지 해설을 뽑아 열거하여 올립니다. 생각해 보시고 채택하여 성상의 몸을 요양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율곡은 임금에게 “병을 다스리는 데는 약과 음식물뿐이 아니라 모름지기 마음을 다스리고 기(氣)를 기른 뒤에야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시에 ‘온갖 보양이 모두 필요 없고 마음을 잡는 것만이 요령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요, 음식물은 말단의 일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찌 양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선조가 왕에 오르기 전에 선조를 가르친 학자로 선조는 항상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유희춘의 덕이 크다”라고 하면서 각별히 존경하였던 인물이다.

율곡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 학자가 국가적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시기에 그렇게 밖에 왕에게 올릴 말이 없었는가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주상께서 대신에게 묻는 말씀은 간절하신데, 대신이 올린 대답은 작금의 폐단을 구제할 계책이 없으니 한탄스럽다. 유희춘 부제학(副提學)이 아뢴 음식에 대한 금기는 왕을 모시는 어의(御醫)의 임무인데, 유 부제학이 임금의 덕을 보좌하고 인도하는 것이 고작 여기에 그치는가?”(『경연일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에 고위 관료들의 한계를 절감한 율곡은 자신이 직접 만언소를 올렸다. 마침 선조가 널리 직언을 올리라는 칙명을 내리자 바로 그는 만자에 이르는 장문의 상소를 올린 것이다. 만언소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제도 개혁을 이루어 당시의 상황에 맞는 변법을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일곱 가지 실속 없는 일을 버리고 실질적인 일에 힘쓰자는 내용이다. 셋째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율곡에게 호의적으로 기록된 『선조수정실록』(1574년 1월 1일)에는 율곡의 『만언소』가 원문 그대로 실려 있다. 1만자가 훨씬 넘는 이 글에 대해서 선조는 이렇게 반응하였다.

“상소의 사연을 살펴보니 요순시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볼 수 있었다. 그 논의는 참으로 훌륭하여 아무리 옛 사람이라도 그 이상 더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하가 있는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어찌 걱정하겠는가? 그 충성이 매우 가상하니 감히 기록해 두고 경계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내용 가운데는 개혁과 관계된 것이 많아 갑자기 전부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또 “이 상소문을 여러 대신에게 보여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는 한편, 복사본을 만들어 올

리라"고 명하였다. 당시 인심이 불안하던 차에 율곡의 상소문에 대한 임금의 비답을 보고서는 백성들의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선조의 말대로 율곡은 요순시대와 같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율곡과 같은 신하를 두고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겠는가? 선조 임금 자신이 바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기록에 남겨두고 교훈으로 삼자고 한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전부 고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만약에 자신이 일본의 군대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고,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맹이를 던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백성들은 도망가는 임금의 가마 행렬 뒤를 쫓아 돌맹이를 던지고, 도망가는 길을 일본 군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아마도 ‘도망가는 임금’의 모습은 백성들에게는 몹시 충격적이면서도 생소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가까이서 선조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 관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생소했을까?



## 만언소의 뒷이야기

임태홍

『선조실록』에는 율곡이 올린 「만언소」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평이 없다. 다만 1574년 1월 21일자 기록에 다음과 같이 부제학 유희춘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말이 나온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뒤로 형벌이 맞지 않는 일이 드물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부역(賦役)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는 본래 그전부터 행해져 내려온 것이지만 지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무(時務)를 아는 것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데, 지난번에 올린 이이의 상소문에 대해 성상께서 답하신 말씀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의 제안을 권장하고 허용하신 것이므로, 각기 보고 듣는 사람마다 모두 감격하였습니다. 소신도 역시 재질과 학식이 이이만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만일 이 사람만 하다면 어찌 것처럼 권장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이이의 상소로 인하여 공물(貢物)·선상(選上)·군정(軍政)에 관한 일을 강구해서 시행한다면 백성들이 곤궁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율곡이 올린 상소문에서 공물(貢物), 선상(選上), 군정(軍政)의 세 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중시하여 그것의 시행을 건의한 것이다.

율곡은 만언소에서 ‘공물(貢物)’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

그동안 선대 임금들은 조정에서 쓰는 것을 매우 절약하고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燕山君) 중년에 쓰는 것이 사치스럽게 늘어나서 일상적인 공물(貢物)로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물을 더 늘이도록 함으로써 그 세수를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신은 지난날에 노인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으나 감히 그대로 믿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전에 승정원에 있을 적에 호조(戶曹)의 공문을 가져다가 보니 여러 가지 공물이 모두가 연산군 7년(1501)에 늘려서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문서를 덮고 긴 한숨을 쉬면서 "이럴 수가 있나! 그때라면 지금부터 74년 전이니, 그동안 성군(聖君)이 왕위에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닐 테고, 현명한 선비가 조정에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닐 터인데, 이런 법이 어째서 개혁되지 않은 채로 있는가?"하고 한탄했습니다.

공물을 받아들이는 법이 74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그 제도는 궁궐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 백성들로부터의 수탈은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율곡은 선상(選上)의 제도, 즉 노비법(奴婢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선상 제도의 본뜻은 면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청의 종들만 가지고는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의 공노비(公奴婢)들로써 번갈아 가며 서울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고 그 제도를 '선상'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천한 노비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머물러 있는 동안 당하는 고통이 막심하여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비로소 베를 가지고 부역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오직 베만을 거두어들이 따름이지 한 사람도 와서 부역을 치루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날로 곤궁해지고 호구(戶口)는 날로 줄어들고 있는데 노비도 역시 백성이거늘 어찌 그들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한번 부역을 치루고 나면 집안이 망하게 되지 않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2년은 공물 바치는 일에 동원되고, 1년은 선상의 사역을 맡아야 하니, 대체로 3년이면 반드시 한 번은 집안을 망치게 되어 공노비들의 고통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공노비의 부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면포를 거두었는데, 그들은 면포도 바치고 공물도 바치는 일에 동원되니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내용이다. 율곡은 공노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의 문제를 임금에게 알린 것이다. 이 내용 가운데에는 당시 '백성들의 삶은 날로 곤궁해지고 호구(戶口)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적인 대개혁이 절대적으로 시급함을 알리고 있다.

또 그는 군정(軍政)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했다.

하늘의 재변(災變)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어서, 본시 무슨 일에 따라서 일어난 것인지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역사를 가지고 증험(證驗)하건대,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군정(軍政)은 무너지고 국경사방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만약 급박한 일이라도 생긴다면 비록 장량(張良)·진평(陳平)같은 이가 지혜를 내고 오기(吳起)나 한신(韓信)같은 이가 통솔을 한다 하더라도, 거느릴 병졸이 없는데 어떻게 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마음이 떨리고 간담(肝膽)이 서늘해집니다.

율곡은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란의 상징'이라고 단정하였다. 아울러 국경 사방이 현재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무리 장량, 진평, 오기, 한신 등과 같이 훌륭한 장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를 병졸이 없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일어난 상황을 눈에 선하게 보듯이 율곡은 지적하였다. 율곡은 이글에 이어 당시 군정의 폐단을 설명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당시 선조의 학문적 스승으로 선조에게 영향력이 컸던 유희춘이 율곡의 제안을

실행하도록 선조에게 거듭 요청한 것은 율곡의 개혁 방안이 그만큼 현실적이고 절실했기 때문이다.

유희춘은 그해 1월 29일 조강하던 때에도 선조 임금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전하께서는 전번에 이이의 상소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칭찬하셨고, 또 김우옹에게 ‘내가 너의 학문을 잘 알고 있으니, 네가 사우(師友)에게 들은 것과 자신이 공부한 것으로 잠계를 지어 오라.’고 분부하셨으니, 보고들은 사람들이 누군들 탄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오늘날의 큰 강령과 시급한 일은 이이의 상소에 이미 다 말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이는 시무를 아는 사람으로 소활한 서생들과는 다르니 진실로 채택하여 쓰셔야 합니다.”

그해 3월 6일자 경연 때에도 유희춘은 다음과 같이 율곡의 만언소를 언급했다. “지금 민생의 고통은 바로 공물(貢物) 및 신역(身役)이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이이의 만언소대로 시정하여 병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조는 율곡의 만언소에 대해서 “그 논의는 참으로 훌륭하여 아무리 옛 사람이라도 그 이상 더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그 충성이 매우 가상하니 감히 기록해 두고 경계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칭찬을 하였지만 그것의 실행 여부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한 분위기는 『선조실록』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흉조가 있으니 정전을 피해서 정사를 돌본 이야기, 직언을 구하는 칙명에 들어있는 문장의 구절을 고쳐야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선조 임금이 감기에 걸린 이야기, 음식을 먹고 체한 이야기,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 등으로 가득 차있다. 1월 20일자 선조실록에는 “천심(天心)이 편치 못한 것은 진실로 내가 덕이 없고 어둡기 때문이다. 지금 직언한 것을 보니 매우 가상하다.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경계하고 반성하겠다.”라고 한 선조의 말이 실려 있을 뿐이다.

선조의 말대로 율곡의 만언소는 ‘요순시대를 만들겠다’는 한 이상주의자의 이상론이었을 뿐이었다.

## 빈말이 가득한 조정

임태홍

선조 7년, 즉 1574년 1월 21일, 강연이 끝나고 김우옹(金宇顒, 1540-1603)이 선조 임금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였다.

“선왕(先王)의 법을 멋대로 고치는 것도 해가 크지만, 폐기해버리는 것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 방종과 해이를 편안히 여기면, 반드시 쇠퇴하여 멸망하는 화가 닥칠 것이니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

“성상께서 재변(災變)을 만나 두려워하시며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말을 살피시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습디만, 실행하는 일이 모자랍니다. 실행을 하신다면 국가와 백성들이 실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김우옹은 경상북도 성주출신으로 남명 조식의 문인이다. 그가 보기에 선조 임금의 최대의 문제점은 실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임금에게 “실행을 하신다면 국가와 백성들이 실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을까? 그만큼 선조는 우유부단한 인물로 결단력이 부족했다.

지도자의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생각만하고 결정내리는 것을 주저하며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자신의 결정으로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을 너무 두려워한 것이다. 좋게 말한다면 완벽주의자의 행동이기도 하다. 가장 좋은 결과만을 뒤쫓다보면 시작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결정은 미루면서 지엽적인 일에 몰두한다. 실행은 뒷전으로 미루고 말만을 앞세울 뿐이다. 선조는 불행하게도 그런 인물이었다.

선조실록의 편찬자들은 율곡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김우옹의 말 중에는 율곡의 만언소를 언급한 대목도 있는데 그 내용은 빼버렸다. 율곡이 지은 『경연일기』에는 김우옹이 그때 “지금 이이(율곡)의 상소를 대신에게 보이려 하셨는데, 이이더러 대신과 함께 의논하라 하시고 또 주상의 면전에서 친히 물으시어 그의 생각을 남김없이 아뢰도록 하심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선조 임금에게 실행력이 부족하니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실행을 하시라고 한 것이다. 김우옹은 임금의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답답하였는지, 경연이 끝난 후 율곡에게 “요사이 일은 빈말(空言)일 뿐이니, 혜택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미치겠는가?”하고 반문을 하였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1월 25일 『선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경연의 자리에서 김우옹이 또 임금의 결단을 촉구한다.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

“주인이 모름지기 일할 재능이 있어야 해내는 것이다. 나를 돌아보니 재능도 없고 덕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경연의 자리에 참석한 정유일이 답을 하였다.

“전하께서는 총명이 남들보다 뛰어나시지만 많은 신하들 중에는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전하께서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기시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선조 임금이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조정에 어찌 현인이 없겠는가. 삼공(三公,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만 하더라도 모두가 인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일을 할 수 없겠는가? 다만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이다.”

정유일이 또 이렇게 아뢰었다.

“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어서 정유일과 임금 그리고 김우옹 사이에 주자(朱子)와 송 태조(宋太祖) 그리고 삼대의 제도와 관련하여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다. 그런데 선조는 갑자기 김우옹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자질이 이미 뛰어나고 학문에 있어서도 공부한 것이 많아 경연에서 진언하는 말이 매양 정성스러우므로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다만 나는 학문이 진보되지 않아 한마디 말도 실행하지 못하므로 항상 부끄럽게 여긴다. 학문하는 일에 대해 옛사람들이 이미 두루 말해 놓기는 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 몸에 절실한 진언만은 못하니 그대가 물러가거든 나를 위해 잠계(箴戒) 하나를 지어 올려서 학문하는 요체로 삼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옆에 두고 보겠다.”

김우옹은 임금의 칭찬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기강을 세워야 하고 갖가지 계책들을 써야 하며, 폐정을 개혁해야 하고 민간의 병폐를 제거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전하의 뜻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겸허한 자세로 능히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시니 진실로 훌륭한 덕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덕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서 그만두지 않고 더욱 진보하는 것입니다. (중략) 전하께서 일을 하기로 뜻을 결단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먼저 마음속으로 정하시기만 하면, 자연히 전하를 도와 힘을 다해 일을 하는 신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김우옹은 나중에 여섯 가지의 잠언을 지어 올렸다. 그 내용은 뜻을 정하라(定志), 학문을 닦고 연구하라(講學), 몸가짐을 삼가하라(敬身), 자신을 극복하라(克己), 군자를 가까이 하라(親君子), 소인을 멀리 하라(遠小人) 등이었다.

율곡의 『경연일기』에는 김우옹의 이야기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다.

이이가 비록 임금으로부터 대우는 받았으나 말은 쓰이지 않았다. 친구인 송익필

(宋翼弼)이 문기를, “숙헌(叔獻, 율곡의 자)이 조정에 머문 지 두어 달이 지났는데 무슨 공적이 있었는가?”하니, 이이가 대답하기를, “비록 나라의 정권을 맡은 사람이라도 두어 달만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하물며 말은 올리지만 시행을 하지는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하였다.

율곡의 만언소는 비록 임금의 칭찬을 받고 조정의 관료들에게도 읽히고 알려졌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않았다. 친구인 송익필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율곡에게 그동안 조정에서 무슨 기여를 하였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율곡 자신은 행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금에게 간언을 올리는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변명 같기도 하지만 실상이 그랬다. 건의하고 제안하고 임금과 조정의 잘못을 지적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왕의 명령을 받는 다른 관료들이 하고 있었다. 요컨대 ‘자문’만 가능할 뿐이었다.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은 율곡보다 2살 위로 서얼출신으로 신분상의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일찍이 관직을 단념하고 고향에서 학문연구와 후학교육에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율곡과는 친구로 사귀었는데, 예학과 성리학, 경학에 능한 학자였다. 『경연일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송익필이 “식자들은 숙헌이 이번에 조정에 오래 머무르니 지난번 퇴거(退居)한 일과는 다르다고 의심하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이는 “물러가려 하나 혹 임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까 염려되고, 머물러 있고자 하나 말을 채용하지 아니하므로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송익필은 “식자들은 임금의 마음을 결코 돌릴 수 없다고들 하던데...”라고 하였다. 이이는 이에 대해 “내가 듣기에는 성현은 그와 같이 단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라 하였다.

송익필이 전하는 여론은 선조의 마음이 이미 개혁과는 멀다는 것이다. 겉으로 화려한 말을 남발하고 훌륭한 관리들을 불러 이러저러한 말을 듣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일종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율곡은 이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동감을 하였을 것이다.

## 울곡이 올린 『만언봉사』의 각오

임태홍

울곡이 만언소(『만언봉사』)를 올린 뒤, 조정에서는 울곡의 상소문을 필사하여 돌려보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실질적으로 울곡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선조는 감기나 위장병을 이유로 경연이나 관료들과의 면담도 회피하고 있었다.

1574년 1월 21일 경연의 자리에서의 일이다.

부제학 유희춘이 임금에게 비장과 위장에 해가되는 음식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에 이이가 이렇게 임금에게 건의를 하였다.

“병 치료는 단지 약물과 음식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스리고 원기를 양성한 다음에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시에, ‘오만 가지 보양도 다 쓸데없고 단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요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고 음식물은 말단이니, 진실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양생(養生)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춘의 의견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지만, 사실 당시 조정이 임금의 건강 문제라든지 간언을 담당한 관료들의 교체문제, 칙명에 들어간 문장 구절의 수정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몰두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선조 임금을 가르치고 그 의중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희춘이 이렇게 말을 돌렸다.

“정무와 관련된 시급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지혜가 뛰어난 인물에게 달렸습니다. 일전에 이이가 올린 상소를 임금께서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명령하셨으므로 모든 아랫사람들이 모두 기쁘고 즐겁게 여깁니다.”

유희춘의 말은 자신의 의견을 공박하는 울곡의 기분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꾸민 말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울곡의 제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자신은 그만한 인물이 못되니 울곡과 같은 인물에게 귀를 기울여 정무와 관련된 시급한 업무를 파악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혜가 뛰어난 인물’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명령하였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 것이다. 울곡의 제안을 실천하자고 임금에게 재차 건의한 것이다.

울곡은 1574년 정월에 올린 『만언봉사』(만언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살펴보건대, 지금의 상황은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고 백성들의 기력은 날로 소진(消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 있는 간신들이 세도를 부렸을 적보다도 더 심한 듯하니,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날뛰던 시절에는 앞

의 임금들이 남겨주신 은택이 어느 정도 다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조정의 정치는 혼란했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힘은 어느 정도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간신들’이란 훈구파 대신들을 말한다. 율곡의 시기는 훈구파 대신들 세력이 몰락하고 사림파의 학자들이 정권을 잡아가던 시기였다. 그들 세력이 권력을 농단하던 때보다 더 상황이 나쁘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오늘날에는 선왕들이 남기신 은택은 이미 다하고,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남겨놓은 해독이 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서, 훌륭한 논의(論議)가 비록 행해진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힘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비유를 들면 마치 어떤 사람이 한창 젊었을 적에 술에 빠지고 여색(女色)을 즐기어 그 해독이 많겠으나, 혈기가 강성한 때문에 몸에 손상이 가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만년에 이르러서야 그 해독이 노쇠함을 따라 갑자기 나타나 비록 근신하며 몸을 보양한다 해도 원기(元氣)가 이미 쇠퇴하여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의 힘이 바닥나 있다는 것을 율곡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13살 때 진사 초시에 합격한 이후로 29살 때까지 과거 공부를 하였다. 중간에 부모님을 여의고, 결혼을 하고, 19살 때에는 금강산에 들어가 잠시 불교에 귀의한 적도 있었다. 또 9차례나 장원에 급제를 하면서 성혼, 정철, 송익필 등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였다. 이 덕분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날카롭고 정확할 수 있는 경륜이 쌓아졌다. 그가 29살 때부터 담당했던 관직은 호조좌랑, 예조좌랑, 이조좌랑, 사간원 정언 등이었고 홍문관, 춘추관, 승정원의 고급 관료를 거쳐 외직으로 청주목사도 역임한바 있다. 조선시대 관료 중에서 핵심 엘리트에 속하였다.

율곡은 『만언봉사』에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다.

“오늘날의 시사(時事)는 실로 이와 같으니, 10년이 못가서 화란(禍亂, 재앙과 난리)이 반드시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열 간(間)의 집과 백 묘(百畝)의 전답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자손은 또 그것을 잘 지키어 선조들에게 욕되지 않게 할 것을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는 조종 백 년의 사직(社稷)과 천 리의 봉강(封疆)을 물려받으셨는데, 화란이 닥쳐오려 하고 있으니 어찌하시겠습니까?”

혹자는 율곡이 십만 양병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와 관련된 문장에 그런 주장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율곡은 10년 못가서 조선의 종묘사직과 영토를 위협하는 난리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 말 가운데, 양병의 제안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10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해결책을 구한다면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해도 아주 엉뚱한 결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며,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스스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는 권세를 잡고 계시고 사리(事理)에 밝으시며, 시국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이 있으시니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소신(小臣)은 나라의 두터운 은총을 받아 백 번 죽는다 해도 보답하기 어려운 정도이니, 진실로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끊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도끼로 목을 잘리는 형벌을 받



게 된다 하더라도 신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율곡의 각오가 잘 드러나 있다. 그만큼 율곡이 보기에 조선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한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던지겠다는 뜻으로,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도끼로 목을 잘리는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더구나 지금 전하께서는 언로(言路)를 넓게 열어놓고 의견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 이시기에 그 친서를 내리심이 간절하십니다. 신이 만약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실로 전하를 배반하는 셈이 되겠기에, 충정(衷情)의 마음을 극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고 난 끝이라서 정신은 흐릿하고 손은 떨리어 글이 저속하고 한 말이 중복되었으며 자획도 겨우 이루어 놓은 터이라 볼 만한 것이 못됩니다. 비록 그러나 글 뜻은 먼뚱하면서도 실은 가까운 것이고, 그 계책은 어리석은 듯하면서도 실은 절실한 것이니, 비록 삼대(三代)의 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로 왕정(王政)의 근 본이어서 그대로 시행하면 효과가 드러날 것이며 왕정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보시고 익히 검토하시며 찬찬히 궁구하고 깊이 생각하시어 성상의 마음속에 취하고 버릴 것을 결정하신 다음, 널리 조정의 신하들에게 물으시어 가부를 의논한 후에 이를 받아들이거나 물리치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 습니다.”

삼대의 제도란 중국에서 이상적인 시대라고 칭송되는 하·은·주 삼대의 제도를 말한다. 율곡은 단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시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그는 자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널리 조정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만언소를 이렇게 마무리 하였다.

“전하께서 신의 계책을 채택하신다면 그것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고, 정성 으로 그것을 시행하며 확신으로 그것을 지켜나가 주십시오. 다만 습속을 따르고 전 레나 지키려는 의견들 때문에 바꾸시지 말고,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며 남을 모함 하는 말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어 3년이 지나도 나 라가 발전이 없고, 백성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며, 군대가 정예화 되지 않는 다면, 신을 기만한 죄로 다스리시어 요상한 말을 하는 자들의 훈계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신의 진언(進言)이 지나칠 정도로 과격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므로 황송 함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율곡의 생각에 3년이면 조선의 군대가 정예화 되고 외국 군대의 침입으로 인한 전란의 화는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되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선조는 율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율곡이 너무 노골적으로 자신을 비판했기 때문일까? 율곡의 만언소 첫 머리에는 조정에서 ‘위(임금)와 아래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는다,’ ‘(임금이 참여하는) 경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임금이) 현명한 사람을 불러 놓고도 그들을 활용

하지 않는다,’ ‘(임금이) 재변(災變)을 당하여도 하늘의 뜻에 대응하지 않는다,’ ‘(임금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백성을 구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유희춘이 임금 앞에서 자신을 추켜세우고 자신이 제시한 만언소의 제안을 임금이 처리하라고 했음을 확인해주자 율곡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례를 표하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였다.

“신은 별다른 소견이 없습니다. 다만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으로 우직한 충정을 털어놓은 것인데, 지나치게 칭찬하시니 매우 감격스럽고 또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은 말도 사들이는데 하물며 산 것이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의 말 같은 것도 허용하셨으므로 사방 사람 중에 반드시 좋은 말을 올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위에 계시면서부터는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 한 사람도 없으므로 사람마다 진언한 것이 적지는 않았지만 공언(空言)일 뿐이고, 한 푼 한 치의 혜택도 민생에게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실효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일을 제안한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사기(士氣)가 떨어지게 것이니 성상께서 되도록 실효가 있도록 하시고 공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재변을 만난 날에 성상의 마음은 참으로 놀라셨겠지만 오래 지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므로 저의 천한 의견에 응답하셨던 진실한 마음이 없어질까 염려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은 단지 빈말일 뿐입니다. 반드시 진실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지런한 일을 실행한 다음에야 재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하셔야 할 것은 학문이 근본이니, 실제적인 공부를 하시되 유신(儒臣)들을 자주 접견하여 의리를 강론하셔서 상하(上下)가 서로 믿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조시대에 퇴계 이황, 고봉 기대승, 율곡 이이, 우계 성혼 등 훌륭한 유학자들이 활동하여 선조의 가까이에서 조언을 하였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런 선조시대에 일본의 침략을 당하여 국토가 유린되고 종묘사직이 위협에 처한 일도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경연제도를 비판한 율곡

임태홍

율곡이 지은 『경연일기』의 1574년 정월(正月) 기록을 보면 ‘임금이 감기로 오랫동안 정사(政事)를 돌보지 못하였다. 신하들이 문병하면 반드시 편안하다고 답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정사를 돌보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신하들이 문병하면 언제나 편안하다고 답하였다는 기록이 묘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임금은 감기로 오랫동안 일을 못하면서도 ‘편안하다’는 것이다.

그 해 정월은 천재 이변이 계속 일어나 궁궐 안팎으로 뒤숭숭한 때였다. 그런데 선조 임금은 감기 외에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체했다고 한다. 1월 7일의 『선조실록』기록을 보면 임금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침해를 받아 체하고 내려가지 않는다. 식사를 하고서 체해 있을 때마다 자못 답답하여 편치 못하지만 먹지 않으면 편안하여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였다.

1월 5일 기록에는 임금이 “요사이 감기에 걸려 기운이 편하지 못하다. 집무는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였다. 그날 승정원과 홍문관 관료들이 병문안을 하자 임금은 ‘편안하다’고 하였다. 1월 8일에는 약을 제조하는 관리가 문안을 가서 살피자 선조는 “지난밤에는 조금 편안했다. 문안하지 마라.”고 답하였다. 승정원과 홍문관 관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문안하지 마라’고 전했다.

1월 10일에는 유희춘이 비장과 위장을 보호하는 방법과 음식물에 관한 메모를 올렸다. 선조 임금은 “그대의 메모를 살펴보니 충성이 지극하다. 치료에 도움이 있을 것이므로 진실로 아름답고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비망기를 내려 보냈다.

1월 18일에는 20일까지 경연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율곡은 당시 승정원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하들이 천안(天顏, 임금의 얼굴)을 오래 동안 뵈지 못하여 상하(上下)가 격조되었다. 임금께 감히 정사를 돌보시라고 청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때고 신하들을 불러 보시라고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임금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선대의 대왕들께서는 비록 편치 않으신 중이라도 신하들을 불러 보시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누우신 방에 들어오라 하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상하가 서로 믿어 간격이 없었습니다. 임금과 신하란 아비와 자식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병이 있을 때 자식이 얼굴을 못 볼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편하신 자리로 신하들을 자주 불러보시고 아울러 의관더러 진찰하라 하시어 증세에 대한 약제를 의논하실 뿐 아니라 수심양기(修心養氣)의 방법도 물으시면 옥체를 조섭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요, 아랫사람들이 주상께서 신하들을 불러 보신다는 말을 들으면 주상의

증세가 대단하지 않은 것을 알고 모두들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 대왕들 시기의 사례이므로 감히 아됩니다.”

율곡으로서는 자신이 올린 『만언봉사』의 시행 여부도 아직 명확히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임금이 감기며 위장병 등의 이유로 정치를 뒷전으로 돌리니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율곡의 문장에 담겨있다.

율곡의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 부응하여 선조는 다음과 같이 답을 내렸다.

“근래에 없었던 일이니 경솔히 행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잘 조절하여 일을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율곡은 만언소를 올렸다. 하얀 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하는 홍조가 나타나자 선조는 널리 직언을 구하였는데, 율곡이 응한 것이다. 율곡의 만언소는 당연히 돋보여 선조는 만언소를 칭찬하고 필사하여 오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리들은 율곡의 제안을 서로 검토해보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런데 율곡의 만언소에는 선조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정면으로 비판한 점이 적지 않다. 선조를 모시는 관리들이 차마 할 수 없는 말도 율곡은 만언소에 거침없이 쏟아 냈다. 그중에 하나가 ‘경연의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것이다.

율곡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옛날에는 삼공(三公)의 벼슬을 두어 사(師)는 교훈(敎訓)으로 교도하여 주었고, 부(傅)는 덕의(德義)를 가르쳐 주었고, 보(保)는 신체를 잘 보전케 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도가 폐지된 뒤로는 사(師)·부(傅)·보(保)의 책임이 오로지 경연(經筵)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자(程子)도 ‘임금의 덕의 성취는 책임이 경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연을 설치한 것은 다만 글을 놓고 강독(講讀)하여 장구(章句)의 뜻이나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혹(迷惑)을 풀어줌으로써 도(道)를 밝히려는 것이요, 교훈을 받아들여 덕(德)을 더하게 하려는 것이요, 정치를 논하여 올바른 다스림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임금들께서는 경연관을 예로써 대우하고 은덕(恩德)으로써 친근히 하여, 집안사람이나 부자지간처럼 정의(情意)가 서로 잘 통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경연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경연제도를 실시하였던 옛 임금들의 경우를 소개한 것이다.

“지금의 경연에 참가한 신하들은 대부분 학문이 부족하고 성의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경연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그것을 기피하려는 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 정성과 깊은 생각을 품고서 성상을 친근히 모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근자엔 경연도 자주 열리지 않고 접견(接見)하는 일도 극히 드물거니와 예모(禮貌)를 엄숙히 하고 사기(辭氣)도 제대로 펴지 못하여, 말을 주고받는 일도 매우 드물고 강의(講議)와 질문도 자세하지 못하며, 정치의 요점과 시국의 폐단에 대하여도 물어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간혹 한두 명의 강관(講官)이 성학(聖學)에 힘쓸 것을 권하는 일이 있었으나 역시 덤덤히 들으시기만 할 따름이었지, 몸소 시험하고 실천해 보려는 실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경연의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한 것이다. 경연에 참가한 신하들의 자질부터 경연에 임하는 임금의 정신자세와 태도까지 거침없는 비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물었다.

“경연이 파한 뒤에 전하께서는 깊숙이 들어가 버리시니, 그곳을 쳐다보며 그저 안타까워할 따름입니다. 전하의 좌우에는 오직 내시들과 궁녀들만이 있을 따름이니 전하께서 평소에 무슨 책을 보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어떤 말을 듣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신하들도 이것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니 하물며 밖의 신하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이어서 율곡은 이렇게 말했다.

“맹자는 아성(亞聖)이시니 제(齊)나라 임금의 존경도 지극하였는데도, 임금이 일을 하다 말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를 모시는 신하들이야 옛 사람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많은데다가 것처럼 소외까지 당하고 있으니 더 어떠하겠습니까?”

그동안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연활동을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 선조로서는 너무나 노골적인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다시 신하들과 경연을 개최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기에는 너무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1574년 정월, 율곡이 『만언봉사』를 올린 직후 건강을 핑계로 신하들과의 면담과 경연을 뒤로 미룬 것은 아니었을까?

율곡과 친구이자 대간(臺諫)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던 유몽학(柳夢鶴)은 율곡에게 “엎어지는 것을 붙들고 위태한 것을 도우려는 뜻이 있으면 아무리 구차스럽다 하더라도 물러갈 것이 아니다.”(『경연일기』)라고 하였다. 아마도 율곡이 선조 곁을 떠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니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것이다.

율곡은 만언소를 올리면서 이미 선조의 한계를 절감하고 조정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유몽학은 구차스럽지만 더 버텨서 기울어가는 국운을 다시 붙들어 세워야 한다고 권했다. 유몽학은 또 이렇게 말했다. “비록 크게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때에 따라 일에 따라 보좌하여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 역시 하나의 도리일 것이다.”

율곡은 이러한 친구의 조언에 “그것은 나라의 정권을 맡은 대신의 일이겠지. 대신은 이미 중임을 맡았으니 마땅히 위태함을 보면 목숨을 바쳐야 하고 물러갈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대신이 아니니 기미를 보아 일어나 행동할 것이요, 목숨을 버릴 수는 없다.” 율곡이 여기에서 ‘일어나 행동한다’는 것은 아마 조정을 떠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결국 그는 2월에 병을 이유로 선조에게 사퇴의사를 밝혔다. 선조는 그런 율곡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나 3월에도 재삼 사퇴를 밝히는 율곡에게 “옛 시에, ‘귀를 씻어 인간의 일을 듣지 않고, 푸른 솔 벗 삼아 사슴들과 어울려 논다’ 하였으니, 은거가 어찌 즐거움이 아니라?”하면서 사퇴를 허락하였다. 선조의 마지막 말에는 자신의 곁을 떠나려는 율곡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잔뜩 담겨있었다.